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4518

2014년 2월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논문

한말 나주의병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禹 正 錫

한말 나주의병 연구

A Study of Naju Volunteer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2014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禹 正 錫

한말 나주의병 연구

A Study of Naju Volunteer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지도교수 이 종 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禹 正 錫

우정석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최진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성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종범 (인)

2013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 v

Ⅰ. 머리말 ····· 1

Ⅱ. 인문 지리적 특성 및 일제의 침탈 ····· 5

1. 인문 지리적 특성 ····· 5

2. 일제의 침탈 ····· 9

Ⅲ. 1896년 전기의병 ····· 15

1. 전기의병의 배경 ····· 15

2. 전기의병의 계기와 전개 ····· 25

Ⅳ. 후기의병 ····· 31

1. 나주의병장의 활약 ····· 31

2. 남한대토벌 작전과 나주민의 대응 ····· 46

Ⅴ. 맺음말 ····· 57

※ 부록 ····· 61

※ 參考文獻 ····· 73

ABSTRACT

A Study on Naju Volunteers in the Late Chosun Period

Woo Jung Sug
Advisor : Prof. Lee jong bum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d the activity period for Naju volunteers in Jeollado from 1896 to 1909 into the early volunteer period in 1896 and the late volunteer period after that date and explained why the early and late patriotic volunteers came about, what purposes they had respectively, and the characteristics and nature of the late patriotic volunteers made known through their activities.

Japanese imperialism oppressed the activities of the volunteers in diverse ways and as their struggle became heated in spite of such oppression, the Japanese sent the army to kill civilians as well as patriotic volunteers.

This study analysed the real intent of Japan's strongly oppressive policy and how such patriotism has been passed

down in absolutely poor condition.

Honam patriotic volunteers, who risked their lives in their fight, were a resistance expressed as an unarmed struggle. They revealed the illusion of Japan's peace maintenance policy after the Russo-Japanese War and hampered Japanese plans to make the Republic of Korea a colony at an appropriate time.

However, the Joseon community in the Honam area had difficulty in forming new leadership even on March 1st 1919.

This means that there were a great number of intellectuals who risked their lives to fight as patriotic soldiers. In spite of the difficulty, intellectuals and civilians in the Honam area continued to resist Japanese imperialism.

This is known through the active laborers' and farmers' resistance activities in the 1920s and it reached its peak with the Gwangju Students Resistance Struggle.

It seems that the ruling classes in Naju were active in resistance activities against modern reforms in local and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Japanese imperialist's efforts.

The moral authority they pursued became a motive for the ruling classes in Naju to exist as community leaders.

The situations they had and how they dealt with them were different, but they still existed as leaders, and their strong social networks were an important reason why they survived without serious personal damage even in a period of ideological struggle.

The patriotic volunteers in Naju were engaged in patriotic activities at the center of the nation and risked their lives to protect our nation and national sovereignty based on the spirit of patriotism.

Ⅰ. 머리말

일제의 침략 야욕이 본격화되는 청일전쟁 이후부터는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위정척사 유생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 사람들에 의한 의병전쟁을 비롯하여 개화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회단체의 계몽운동, 교육언론활동, 산업진흥을 통한 실력양성운동 등 이 시기에 다양한 형태로 추진된 국권회복운동이 그것이다.

의병은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1894년 청일전쟁을 계기로 처음 봉기하였다.[1]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단 점거하는 갑오변란을 일으켜 (1894년 음 6월 21일) 조선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본격화하고 이를 계기로 김홍집 친일 내각이 들어서 갑오경장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반발을 야기하였다.

또한 1895년에는 명성왕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과 단발령 등이 연이어 발생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반일감정은 극에 달해 전국적으로 의병이 봉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일어난 의병은 이후 국치 직후까지 20여 년 동안 일제 침략의 여러 단계와 그 양상에 상응하여 항전의 강도를 차츰 더해 갔다.

청일전쟁 직후부터 경술국치 이후까지 전후 20여 년간 지속된 의병전쟁은 한국근대사의 전개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보여준 주체성의 精華였다. 곧 의병전쟁은 전 민족의 힘이 결집된 대일 전면전인 동시에 민족의 聖戰으로 승화되었던 것이다.[2]

먼저 의병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義兵이란 戰亂이 일어나거나 혹은 外

---

1) 김상기, 『한말의병연구』,일조각, 1997, 여기에서 김상기는 한말의병의 시초를 문석봉으로 파악하고 있다.

2) 박민영,「민족성전으로서의 의병전쟁」,『한국민족운동사 연구』, 나남출판사, 2003, 130쪽.

侵에 의하여 국가의 存立이 위태로울 때, 또는 국가의 權威가 失墜되었을 때에 官軍이 아닌 일반 백성이 정부의 명령이나 徵發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국가를 위하여 싸우는 義勇兵 즉, 民兵을 말한다. 3)

이러한 義兵은 경우에 따라서 정부의 勸勉에 의하여 일어나는 수도 있으나 대개는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들은 무기나 軍需品 그리고 군비 등 일체의 軍資를 스스로 조달하게 되며, 작전과 전투 등의 用兵에 관한 일도 원칙적으로 정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여 움직인다.

더구나 이들은 正規軍人이 아니라 민간인이기 때문에 무기가 貧弱하고 작전을 세우고 전투하는데 生疏하며, 또 스스로 군자를 조달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 싸워야 한다. 그러한 까닭에 의병은 때에 따라 성공을 거두어 국가를 復興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수도 있지만 어느 때에는 犧牲만을 크게 낸 채 失敗하는 境遇도 많다.4)

둘째로 義兵이 동학농민운동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독립군과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동학농민운동이 비록 斥洋斥倭를 부르짖고 외세의 浸透에 반대한 운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東學이라는 종교 세력을 기반으로 한 운동이며, 또한 政治的 목적보다는 社會改革의 目標가 핵심이 된 운동이기 때문에 이를 의병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한편 韓日倂合後 武裝 獨立軍의 鬪爭도 원칙적으로는 의병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을 뿐더러 또 의병과 연결되는 운동이므로 이 範疇속에 넣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즉 국가가 이미 멸망한 뒤의 활동이고, 또 활동지역이 국내가 아니라 외국이며 더구나 활동의 기반이 직접 국내의

---

3) 愛國同志援護會編 : 韓國獨立運動史(서울 : 同 援護會 1956), 23쪽.
4) 이구용, 「한말의병 연구」,『史叢 24』, 1975, 493쪽.

민중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독립군'이라 하여 의병과는 구별한다.[5]

본고에서는 전체적인 의병전쟁의 기간을 1894년에 義兵이 일어나서 1909년경에 義兵이 終熄될 때까지의 활동을 의병들의 활동 기간으로 한다.[6] 이 시기에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의병 활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중에서 본고에서는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의병의 시작에서는 늦었지만 마지막까지 의병 항쟁을 벌였던 곳이 전라도 지역이며 그 중심에 나주 의병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라도 의병의 중심이었던 나주의병의 활동 기간을 1896년부터 1909년까지로 설정하고, 이시기 나주 지역의 인문 지리적 특성과 일제의 수탈 과정을 통하여 나주지역이 의병의 중심지가 된 배경을 분석하며, 1896년 의병을 전기의병, 그 이후 의병을 후기의병으로 나누어 전기의병의 발발원인이 무엇이었으며, 의병활동의 과정을 파악하여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후기의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후기의병에서 활약한 의병장들의 활약을 통하여 후기의병이 갖는 특징을 정리하고 후기의병의 본질을 파악하여 본다.

이러한 의병들의 목숨을 건 활약에 일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

5) 이구용의 앞의 논문, 495쪽.

6) 의병이 봉기한 해를 중심으로 한말 의병운동을 각각 乙未義兵, 乙巳義兵, 丙午義兵, 丁未義兵 등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전 시기의 의병운동을 그 성격과 관련하여 어떻게 시기 구분할 것이냐의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상당한 견해차가 존재한다. 朴成壽 교수는 을미의병부터 군대 해산 이전까지의 乙巳·丙午義兵을 총칭하여 제1차 義兵戰爭으로, 군대 해산 이후, 즉 丁未義兵 이후의 의병운동을 총칭하여 제2차 義兵戰爭으로 구분하였는가 하면, 姜在彦은 초기(1895), 재기(1905~1907.7), 고조기(1907.8~1909.8), 전환기(1909.9~1914)로 구분하였다. 또 趙東杰은 최근 한말 의병운동을 크게 전기(1894~1896.10), 중기(1904~1907.7), 후기(1907.8~1909.10), 전환기(1909.11~1915)로 구분하고 각 시기 의병운동을 다시 세분하여 총 8단계의 시기 구분을 시도한바 있다.

탄압했으며,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의병 항쟁이 더욱더 가열되자 일제는 군대를 파견하여 의병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학살하는 '남한대토벌'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강력한 탄압정책의 저의가 무엇이었는지 분석하여 보고,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한 의병정신이 오늘날 어떻게 이어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인문 지리적 특성 및 일제의 침탈

1. 인문 지리적 특성

나주지역이 장성과 함께 전라남도 지역의 의병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형적 특징을 꼽을 수 있다. 전라남도를 자연적 지형에 따라 나누어 보면 4개의 대권역과 1개의 소권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4개의 대권역은 ① 나주의 영산강 유역권, ② 광주권, ③ 영암의 동쪽으로 이어지는 서남해안권, ④ 순천을 중심으로 한 섬진강 유역권 등이고, 1개의 소역권은 ⑤ 영광권이다.[7] 『擇里志』를 기준으로 설정한 이 권역에서 나주지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나주는 노령 아래에 있는 한 도회인데 북쪽에는 금성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영산강에 임했다. 고을 관아의 판세가 한양과 흡사하여 예부터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이 많다.
>
> 영산강은 서쪽으로 무안·목포에 흐른다. 강을 따라 내려가면 경치 좋은 마을이 많다. 강을 건너면 큰 들이 있는데 동쪽으로 광주와 경계가 닿았고, 남쪽은 영암과 통했다. 기후가 화창하고 물자가 많으며, 지역이 넓어서 마을이 별과 같이 깔려 있다 또 서남쪽을 지나 바다를 통해 물자를 실어 들이는 이익이 있어서 광주와 함께 이름난 고을이라 일컫는다.
>
> 노령의 서쪽이 영광·함평·무안이고 남쪽이 장성·나주인데 이 다섯 고을은 샘물에 짠기가 없으니, 노령 북쪽의 여러 고을과는 비할 바가 아니다.[8]

이 권역은 나주가 중심이 되고 영산강이 연결의 고리가 되어 서쪽으로 함평·무안에 이른다. 장성의 일부도 이 권역에 속한다.

---

7) 고석규,「朝鮮 後期 場市 變動의 樣相- 전라남도의 장시를 중심으로 - 」,『한국문화 21』,1998, 211쪽.

8) 『擇里志』「八道總論」「全羅道」 乙酉文庫, 1962, 99쪽.

한편,

> 영광 법성포는 바다 조수가 들어오면 바로 앞에 물이 돌아 모여서 호수와 산이 아름답고, 민가가 빗살처럼 촘촘하여 사람들이 작은 西湖라 한다. 바다와 가까운 여러 고을은 모두 여기에다 창고를 설치하고 세미를 수납하여, 배로 실어 나르는 장소로 한다.[9]

라는 지적에서 영광은 지형적으로 나주권과 나누어지나 조운을 통해 항상 밀접히 접근해 있음을 알 수 있다.[10]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정보와 물자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사람들의 교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즉 이 지역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식하고 생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반은 의병을 모집하는데 수월하였을 것이며, 장기 항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지방행정 체제의 모순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시기 地方行政體制는 守令과 吏胥, 그리고 그 보좌기관인 鄕廳과 守令의 간접지배에 의한 面里制로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地方行政體制는 교통·통신시설이 미비했던 中世國家에서 鄕村支配를 수행하는 방식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地方官의 全權행사, 지방행정 실무자 층에 대한 보수체계의 비합리성이라는 구조적 모순관계와 아울러 地方官 數遞·매관매직 등의 요인이 더해져, 조선 후기 地方行政은 걷잡을 수 없는 문란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11]

불합리한 지방제도와 징세제도는 결국 향리들의 부정부패의 원인을

---

9) 위와 같음.
10) 고석규, 앞의 논문, 212쪽.
11) 윤정애, 「한말 지방제도 개혁의 연구」, 『역사학보 제105집』, 1985, 75쪽.

제공하였고, 불합리한 징세업무에 백성들이 그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했다. 백성들은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민란을 일으켰으며, 나주지역의 민란도 이러한 지방행정 제도의 모순과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주체들의 부도덕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전형적인 민란의 형태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란에 참여했던 농민들은 조세를 징수하는 운영주체를 상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1896~1909년까지의 의병에서도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는 주체들을 대상으로 목숨을 건 투쟁을 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 농민들의 삶을 파괴한 주체는 일본과 일본인들의 정책에 동조하는 세력들이었던 것이다.

셋째는 농촌경제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개항 이후에는 자본주의 열강의 상품과 자본이 국내에 침투하여, 농촌에서는 농산물을 매점하거나 시세 이상의 가격으로 토지를 불법 매입함으로써 농촌경제의 파탄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에 편승한 일부 지주들은 이들과의 거래에서 얻은 이익을 재투자하여 토지집적 및 고리대적 수탈을 자행하였다.[12)]

나주지역 역시 대표적인 米·綿 생산지였기 때문 이러한 수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 수탈을 나주지역 농민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몰락한 농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에 위협이 되는 세력에 목숨을 건 항쟁을 꾸준히 제기하였으며, 전기의병 역시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었다.

넷째, 나주지역 향리들이 적극적으로 의병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나주에서는 1880년대에 들어 “나주민란 10년”이라고 표현될

12) 권구훈「한말 의병의 參加階層과 그 動向- 後期義兵의 性格變化와 關聯하여-」,『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집』,1987, 186쪽.

정도로 민란이 잦았고, 1889년부터 3년 동안 계속 민란이 일어났다.[13] 이러한 민란의 원인은 목사의 무능과 부패, 향리들의 농간이었다. 이에 나주는 奸鄕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3년 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상황이 반전되었다. 戶長 鄭錫珍(1851～1896)을 비롯한 나주 향리층은 閔鐘烈 목사의 지휘아래 수성군을 조직하여 농민군과 여러 차례 공방전을 벌인 끝에 나주 방어에 성공 했던 것이다. 이로써 이들은 농민군 진압의 공적을 인정받아 『甲午軍功錄』에 수록 되었는데 그 군공록에는 나주관련 인사 25명 중 향리층이 21명이나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14] 이는 나주지역 향리층이 새로운 사회 주도세력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향리층이 한말 나주지역의 새로운 사회 주도 세력이 된 또 다른 이유는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대지주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제력은 이들이 사회 주도층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고, 근대적 관료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도세력이 되었던 것이다.[15] 이러한 나주지역 향리층은 친일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의병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현대사회에서도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문지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던 나주지역은 의병시작이 다른 지역보다 늦었지만 마지막까지 항전한 호남의병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던 것이다.

---

13) 「湖南肅啓草」,『各司謄錄』54, 109쪽, 122~123쪽.
14) 홍영기,「한말 나주의병의 주도인물과 활동」,『한국학 논총 34』,2010, 971쪽
15) 박진철,「한말 나주읍 향리사회의 특성과 변화」,『대동문화51집』,2005, 252쪽

2. 일제의 침탈

나주지역이 호남 의병의 중심지였던 배경에는 나주지역이 호남의 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일제는 호남경제의 중심지였던 나주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적 침탈을 감행하였으며 이러한 경제적 침탈에 맞서 나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병활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의병을 촉발시키는 일제의 경제 침탈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 번째는 米綿交換體制에 따른 식민지 경제의 심화가 의병을 촉발시켰다. 조선경제의 성격을 규정짓는 외부적 요인, 즉 무역구조상의 모순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이른바 '미면교환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면교환체제란 서구 또는 일본의 자본제 제품의 국내 유입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국내 농산물의 해외 유출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적인 것이며, 동시에 불평등한 무역관계이다.

미면교환체제 하에서 조선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은 쌀이었다. 국내적 動因에 의하지 아니한 쌀의 항상적인 해외 流出은 그 자체가 조선경제의 일본에의 예속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조선 경제의 생산 및 유통과정의 식민지적 재편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식민지적 모순관계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국내 최대의 쌀 생산지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지역에서 가장 첨예화될 수밖에 없었다. 호남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1897년과 1899년에 목포와 군산이 각각 개항되고 나서부터 더욱 심화되었는데, 그것은 일본 자본주의의 경제적 요구와 관련시켜 볼 때 당연한 역사적 귀결이었다.[16]

또 하나는 면화의 생산 및 유통은 1910년 이전까지 중요한 지위에

16)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4, 26~29쪽.

있었다. 특히 목포항은 통하여 이루어지는 면화의 유통은 전라도 일대에서 생산되는 면화가 일본으로 수출되어 방적사의 원료가 되고 이 방적사가 다시 목포항을 통해 호남지역으로 유입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호남지역 일대가 '원료수출-제품구매'라는 전형적인 식민지 경제구조로 급속히 전환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제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방적자본의 보다 유리한 원면 공급을 위해 공유지와 사유지를 막론하고 그들 멋대로 약탈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다.

개항 이후 조일 양국 간의 미면교환체제의 성립은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곧 조선경제의 종속적 발전과 식민지적 재편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형성된 조선사회 내부의 새로운 모순은 다른 지역보다 쌀과 면화가 주된 생산 기반이었던 호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되었다. 그리하여 호남지역 민중과 제국주의 일본과의 적대적 관계가 심화된 호남지역 경제의 구조적 모순 즉 경제구조의 식민지적 재편은 1905년 이후 호남지역에서 농민이 주축이 된 의병운동의 주요한 경제적 동인이 되었다.[17]

두 번째는 일본제국주의 상권이 유통의 중심지였던 浦口를 장악함으로써 포구를 중심으로 발달한 조선의 유통경제의 발달을 저해하고 조선인들의 핵심적인 상권을 침탈하여 조선 상업을 몰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포구가 조선 민중들의 수탈 거점이 됨으로 인하여 조선민중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병을 일으켰던 것이다.

포구는 당시 상품 교역상 절대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 호남지역의 각 포구에서 거래되는 상품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쌀을 비롯한 농산물이었다. 그리하여 한말에 이르러서는

17) 홍순권 앞의 책, 34~35쪽.

전라북도의 茁浦와 전라남도의 영산포를 중심으로 한 인근의 여러 포구들이 일본으로의 쌀 수출과 함께 크게 번성하였다.[18]

영산강의 각 河岸에는 榮山浦를 비롯한 수많은 포구들이 발달하고 있었으며 영산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포구에서 면화 유통이 크게 발달하였다. 學校와 같은 곳은 매년 靈光, 咸平, 나주 지방으로부터 폭주하는 면화의 거래량이 수만 圓에 달할 정도였다. 전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南平 시장은 內地의 최대 면화 집산지로서 유명하였다.[19]

또한, 서남 연안 하구의 여러 포구들은 이른바 '未開港場'이면서도 불법적으로 쌀을 유출하는 일본인들의 활동무대였으며, 그 때문에 이들 포구를 중심으로 이른바 '防穀令事件'이 자주 일어났다.[20] 따라서 이들 포구는 개항 이후 줄곧 일본 상인들의 내지 진출을 위한 주요한 거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 농업경영자들 또한 이러한 상업 및 교통상의 이점을 십분 이용하고자 각 포구에 상점과 사무소를 설치하여 조선침략의 거점으로 삼았다.

의병들이 봉기하면서 포구를 주요한 공격 목표로 설정하였던 것도 바로 이러한 사정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함평출신인 沈南一이 자신의 고향에서 의병 모집에 실패하고, 남평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의병진을 구성하였던 것을 통하여 볼 때 남평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 되었던 면화 유통이 조선민중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에 의해 장악됨으로 인하여 남평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조선민중들의 유통경제의 몰락에 따른 남평 지역 민중들이 적극적인 항일 투쟁의 방법으로 의병활동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

18) 홍순권 앞의 책, 35쪽.
19) 홍순권 앞의 책, 22쪽.
20) 河元鎬,「開港後 放穀令實施의 原因에 관한 硏究(1876~1904)」,『고려대 석사학위 논문』,1984, 59~69쪽.

세 번째는 국유지 창출 확대, 지주제 강화라는 대농정책과 일본인의 토지잠매로 인한 농지이탈 등 경제적인 피폐는 봉건적 대지주와의 반목에서 점차 친일 집권관료, 대농민정책,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반발로 변화되면서 의병전쟁이 발생하였다.

1900년 光武査檢은 왕권강화를 위한 황실재정의 확충이라는 성격에서 실시되었다. 그런데 둔토의 농민들은 공문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私文記를 통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검의 참고 문서는 양안과 토지대장이었던 관계로 사검과정에서 토지대장과 사문기가 일치되지 않을 경우 토지대장에 의해 처리됨으로써 농민의 피해가 속출하였다.

또한 土地臺帳上에 납세자가 소작인인지 지주인지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公土로 편입시키게 되어 토지를 잃는 농민들이 속출하게 되었다.[21] 결국 국유지 창출을 통한 국가재정확충에서 황실지주제 강화를 통한 황실재정 확충으로 이어진 역둔토 조사사업은 농민적 입장을 외면한 사업이었으므로 해당 지역의 농민 피폐는 악화되어 갔으며, 토지정책에 의한 농민의 피폐 이외에 일본인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침투가 농민피폐를 부가시키고 있었다.[22]

청·일 전쟁 이후 국내정국이 혼란해지고 각종 이권이 각 제국주의 열강에게 빼앗기는 과정에서 국내에 거류하는 외국인들은 국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김으로써 법에 어긋나는 토지매득이 계속된 것이다.[23] 토지매득은 일본인에 의해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다. 원래 일본인들은 상업이나 고리대금에 주력하고 있었으나, 농산물의 매입과정에서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직접 생산을 통한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

21) 裵英淳, 「韓末 驛屯土調査에 있어서 所有權 紛爭 - 光武査檢期의 紛爭事例에 대한 分析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25, 1979, 81~82쪽.
22) 권구훈 앞의 논문, 189쪽.
23)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硏究(下)』,일조각, 1970, 304쪽.

그것은 한국의 지가가 일본의 1/10 내지 1/20에 불과하고, 토지매입 절차가 간단하였으며, 당시 소작료가 現物半作地代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24] 특히 전라북도 서북부 연안의 호남평야 일대와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의 나주평야 일대는 인구, 임금, 교통, 토양, 地價, 水利 상황 등 모든 조건이 거의 빠짐없이 충족하고 있었다.[25]

전라남도에서 일본인의 토지 침탈이 시작된 것은 1902년 木浦興農協會라는 일본인 營農組合이 창설되고 나서부터였다. 이 협회는 이듬해인 1903년부터 영산포 방면의 전답을 매수하였다. 이어서 1904년에 마부치(馬淵繼怡郞)가 남평군 曠彈에 마부치 농장을 건설하였다.[26]그 후 1904년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사회적 혼란을 틈타 일본인 농업 자본가들이 토지를 잠매하여 대지주가 되고 농장을 경영하게 됨으로써 모순은 한층 더 증폭되었던 것이다.[27]

1905년 을사조약 체결 뒤 일본인들은 통감부 권력을 등에 업고 전국 각지에서 干潟地, 황무지 등 각종의 미간지에 대한 대대적인 토지 침탈을 전개하였다. 한말 당시 조사된 전국의 미간지 분포 현황을 보면 전국에 약 118만 5천여 정보의 미간지가 분포되어 있었는데, 그 중 호남지역에 총 22만 598정보의 미간지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28]

호남의 여러 지역 가운데서도 특히 영산포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

---

24) 趙璣濬,「日人農業移民과 東洋拓植會社」,『韓國近代史論』, 지식산업사, 1977, 155~157쪽.
25) 홍순권 앞의 책, 36쪽.
26) 홍순권 앞의 책, 69쪽.
27) 金容燮,「韓末 日帝下의 地主制 - 事例 4:古阜 金氏家의 地主經營과 資本轉換 -」,『韓國史硏究』19, 1987, 79쪽.
28) 홍순권 앞의 책, 44쪽.

은 약 1만 6589정보의 미경지가 분포되어 호남 최대의 미경지 밀집지역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대한 미경지(荒蕪地)의 존재는 영산강을 끼고 발달한 주변의 水田農業과 더불어 일본인들의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었다. 영산포를 중심으로 영산강 유역 일대의 황무지 침탈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대표적인 일본인은 東山農場 전남지부의 야지마(矢島生三)였다.

1906년 이후에는 전라남도 일대에서의 일본인들의 농장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그들 가운데 1910년 '합방' 이전에 이 지역에 진출한 주요한 농사경영자는 미네 농장(峰農場), 아사히 농장(旭農場), 朝日興業株式會社 등 100정보 이상의 대토지를 소유한 농장만도 10여 개에 달하였다. 이들은 각각 남평, 광주, 진도, 영산포 등지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나주, 무안의 영산강 유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각처 평야지대의 비옥한 토지를 매입하여 경영하였다.[29]

이러한 경제 침탈은 결국 농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처참하게 만들었으며, 많은 난을 통하여 의식이 한층 더 성장한 농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 진정한 약탈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였고 이들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한 의병에 적극 참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인의 농장과 사무소·출장소는 의병들의 목표물이 되었으며, 일본인들의 농업경영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에 일제는 농업경영의 편의를 돕기 위해 郵便取扱所와 같은 금융기관 설치와 수시로 군대와 경찰을 파견하였다. 의병들은 이들 모두를 경제적 침탈기구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타격을 가하여 몰아내는 것을 의병투쟁의 목표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

29) 홍순권 앞의 책, 69쪽.

Ⅲ. 1896년 전기의병

1. 전기의병의 배경

나주지역 전기의병 배경을 크게 6가지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 번째 향촌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지식인들의 사상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향촌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지식인들을 양반과 향리층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양반층은 일찍이 관직에 진출하지 않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나 지방에 거주하던 인사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들의 경제적 위치는 농업에 종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였으나 그들의 인식은 의리와 명분을 소중히 여기며 벼슬에 집착하는 사람을 경시하고 불굴의 토착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거주 지역은 경기도 이하 삼남지방에 분포하고 있었다. 당시 그들은 근대화 정책을 허구적인 정책, 일제에 의존한 매국적 행위로 규정지었으며, 일본상품의 유입은 국내 산업의 도산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었다.[30]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당시 조선 현실을 인식했던 전라도 지역의 대표적인 학자는 蘆沙 奇正鎭(1798~1879)이다. 노사는 이렇다 할 스승의 탁월한 지도나 학문적으로 심오한 학자로부터 師事받은 바 없었다. 오로지 자신의 노력에 의해 성리학자로서 명성을 쌓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6대가의 한 사람 혹은 근세유학의 3대가의 1인으로 평가받았다.[31]

노사는 조선을 지켜야 할 至高의 목표로 인식하였으며, 그것은 학문적인 면에서 理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사회적 현상은 개혁이나 변화의 대상으로서 氣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노사는 사회

30) 권구훈 앞의 논문, 183쪽.
31) 금장태, 고광식, 『儒學近百年』, 박영사, 1982, 303쪽.

체제의 변화를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현실세계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유리론적 이일원론은 노사의 현실인식의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다. 노사는 대내적으로는 삼정 문란에서 비롯된 농민의 봉기가 그칠 날이 없는 데다 대외적으로는 천주교를 앞세운 서양세력의 침투가 점증하고 있었던 19세기 중반 조선의 사회적 상황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것이다.[32]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노사의 학문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당면한 문제점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특징을 지녔다고 하겠다. 이러한 노사의 실천적 성격은 문인들에게 그대로 계승·발전되었음은 물론이다.[33] 노사의 실천적 성격을 계승한 노사학파는 난마와 같이 어지러운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면 반드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준 스승처럼 시대적 상황을 해결하기위한 현실참여의 방법으로 의병항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다.[34]

이러한 노사학파에는 나주지역의 많은 지식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단지 노사의 직계제자뿐만 아니라 노사의 실천사상을 계승한 지식인들에게 공부를 배운 많은 지식인들이 나주지역 사회지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면서 나주지역 의병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들은 노사의 사상을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호남지역의 반침략 저항운동을 주도하였으며, 그 중심에 나주지역 지식인들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 의복제도 개정의 문제 즉 변복령에서 찾을 수 있다. 갑신변복령이 있은 지 10년 뒤인 1894년 9월 갑오경장 때 의복제도의 개정

---

32) 홍영기,「노사학파의 형성과 위정척사운동」,『한국근현대사 연구 제10집』, 1999, 91쪽.
33) 홍영기 위의 논문, 92쪽.
34) 金永鎬, 「침략과 저항의 두 가지 양태」, 『문학과 지성』, 1970, 31쪽.

문제는 다시금 제기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칙령 제17호를 반포하여 관복을 더욱 간소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895년부터 조신의 대례복에는 黑團領을 입게 하고 進宮時 通常禮服으로 흑색의 周衣와 답호를 입고 紗帽와 靴子를 착용하게 하였다.[35] 10년 전 사복으로 착용케 했던 周衣가 이제는 진궁시의 통상예복을 바꾼 것이다.

1895년 3월에는 칙령 제67호로 공사예복을 다시 개정하였다. 공사예복에서 답호의 착용을 금하였고 진궁 때에만 사모, 화자, 사대를 착용케 하였으며 또한 관민이 다 같이 흑색의 주의를 입도록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을미변복령의 요체로 '黑色周衣'를 일반인도 입도록 조처한 이유는 첫째 의제상으로라도 관민을 구별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의복제도, 곧 선왕의 법복을 조선의 문화적 긍지의 한 척도로 인식하고 있던 수구적 지식인들은 변복령의 반포로 인해 심각한 문화적 위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들에게 있어 복제의 개정은 그 자체에만 국한되는 의미가 아니라 인류의 지선 극미한 전통문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착되었던 것이다. 특히 '陰邪'로 상징되는 흑색의 복제를 채택한 데 대해서는 더욱 그러한 성향이 강하게 노정되었다.[36] 그러므로 이 변복령은 곧이어 전개되는 전기의병의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는 1896년 나주의병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謙山 李炳壽(1855 ~ 1941년)의『錦城正義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병수가 통문을 지어 松沙 奇宇萬(1846~1916)에게 답통을 한 내용에서 '군왕을 위협하고 전권을 장악하여 제도를 바꾸고'[37]와 이십일 임금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

35) 『高宗實錄』 권 31, 고종 31년 12월 16일조.
36) 김상기, 『한말의병연구』,일조각, 1997, 66쪽.
37) 李炳壽, 『(국역)錦城正義錄』,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1991, 116쪽.

해서 상소를 올린 부분에서 '우리의 제도를 고치며 우리의 의상을 벗기고'[38]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주의병이 의병의 기치를 들었던 이유도 바로 복제 변경이 한 원인이었던 것이다.

세 번째 모든 국민들을 충격 속에 몰아넣었던 단발령에 그 원인이 있다. 金弘集(1842~1896) 내각은 을미사변이 있고 불과 3개월이 지난 1895년 11월 15일 단발령을 선포하였다. 이때 내세운 단발의 명분은 '위생에 이롭고 작업에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교 윤리가 일반백성들의 생활에 깊이 뿌리 내려져있던 조선사회에서는 상투는 곧 인륜의 기본인 효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단발령이 내려지자 유생들은 이것을 신체적 박해로, 더 나아가 인륜의 파멸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반감은 절정에 달하였다.[39]

梅泉 黃玹(1885~1910)은 이때의 상황을『梅泉野錄』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여 비극적인 역사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

> 단발령이 내려지자 곡성이 하늘을 진동하고 사람마다 분노하여 죽음을 무릅써 형세가 당장에라도 변이 생길 것만 같았다. 일제는 군인을 배치시켜 엄히 지키고 警務使 허진은 순검을 인솔하고 칼을 차고 길을 막아 행인을 만나는 대로 뭉뚝 머리를 잘랐다. 또한 인가에 들어가 수색하여 찾아내었으므로 깊이 숨지 않고서는 면할 수가 없었다. 서울에 손길 왔던 자들도 상투가 잘려 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고 통곡, 出城하였다. 무릇 단발당하는 자들은 머리가 정연히 단발되지 못해 상투만 잘리고 머리카락은 늘어져 마치 長髮僧 같았다.[40]

단발령 공포는 백성들의 뜻과는 배치되는 일부 매판관리집단에 의한

---

38) 李炳壽 위의 책, 135쪽.
39) 김상기, 『한말의병연구』,일조각, 1997, 66쪽.
40) 황현 저, 김준 역 『국역 매천야록』, 교문사, 1995, 369쪽.

자의적 조치였다.

유교통념의 사회에서 단발령은 한민족의 문화적 자존의 표상이던 상투를 제거함으로써 전국민의 울분을 자아냈다. 강요된 단발령은 결과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 큰 혼란을 야기했다. 그리하여 단발강요에 대한 반감은 개화 그 자체를 증오하는 감정으로 발전하였고, 일본화로 받아들여져 항일의식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유생들은 개화를 상징하는 단발령을 인륜을 파괴하여 문명인을 야만인으로 전락케 하는 처사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결과 전통질서를 수호하려는 유생들은 반침략·반개화의 의병을 일으켜 이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41] 즉, 명성왕후 시해와 단발령 그리고 개화정책으로 야만의 세계가 되었으니, 이런 세상에서는 목숨을 걸고 봉기하여 문명의 길로 가자는 것이다.[42]

나주의병의 원인 역시 단발령에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 장성 참봉 기우만이 의병을 모집하여 적을 토벌할 뜻을 가지고 나주에 통첩을 보내왔다. 개봉하니 그 내용에 말하기를 '(중략) 관복을 벗기고 머리를 깎아도 마음에 걸리지 않으니 중화와 이적의 행위가 드러났지만(중략),'[43] 초사일 이병수는 통문을 지어 송사 기우만에게 답통을 했는데 그 내용에 말하기를 '(중략) 민에게 강제로 삭발시키니 아무리 삭발을 당했지만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중략)',[44] 李鶴相이 임금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한 상소문에서 '(중략) 우리의 민생들의 머리를 깎아서 사천년 동안 당당히 지켜온 예의지국이 오랑캐와 짐승들의 지역으로 빠져들게 되었단 말입니까?(중략)'[45]

41) 김상기 앞의 책, 69쪽.
42) 권구훈 앞의 논문, 183쪽.
43) 李炳壽 앞의 책, 110쪽.
44) 李炳壽 앞의 책, 116쪽.

당시 나주지역의 의병에 관한 기록은 나주지역에 살던 지식인들을 비롯한 백성들의 생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여 볼 때 단발령 또한 나주의병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네 번째 지방제도 및 조세제도 개혁이 일본의 사주를 받은 개화파 관료들과 일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의병전쟁이 발생하였다. 1894년의 동학농민전쟁은 나주 향리층이 자신들의 결속력과 사회적 위세를 강화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동학농민전쟁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같은 해에 시행된 갑오개혁은 이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존립 근거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지방제도와 조세제도 개혁안은 향리층의 이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46]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1894년 8월에 시행된 <結戶錢奉納章程>에서는 이전까지 수령과 향리층이 일원적으로 담당하던 조세 실무를 분리하여 조세의 부과는 수령이, 징수는 향원이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종래의 부세 종류를 개혁하여 정액화된 결전과 호전만 거두었기 때문에 정액 외의 부가세도 거둘 수 없게 하였다.[47]

1895년 5월 26일 시행된 지방제도 개혁의 핵심은 조선시대의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실시하는 것이었다.[48] 지방 관제의 개혁에 따른 변화 가운데 향리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은 무엇보다 각 관찰부

45) 李炳壽 앞의 책, 135쪽.
46) 배항섭 앞의 논문, 201쪽.
47) 이상찬,「1894~1895년 지방제도 개혁의 방향」,『진단학보』67, 1986, 84~85쪽: 유정현「1894~1904년 지방재정제도의 개혁과 이성층의 동향」,『진단학보』73, 1992, 64쪽 : 이상찬,「갑오개혁과 1896년 의병의 관계」,『역사연구』, 역사학연구소, 1997, 49~50쪽.
48) 윤정애 앞의 논문, 82쪽.

에 주사 약간 명을 제외한 기왕의 이서와 장교 등 지방관아의 하급 관속들을 대폭 축소한 점이다.

이에 따라 당시 부군현 약 327개소에 소속되어 있던 총 2만 2,300명의 역원 가운데 약 70%가 넘는 1만 6,000여명이 쫓겨날 형편이었다. 나아가 개혁안 가운데 관세사와 징세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국 337개 군을 154개로 통폐합하려는 방안도 있었다. 이는 곧 이서층의 대규모 실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49]

나주부의 경우 지방제도 개혁 이전 향리 33명, 영리 8명, 의생 60명, 율생 15명, 서원 55명, 군관 50명 등이 있었으나, 1895년의 관제개혁으로 나주부의 역원 정원은 주사가 14명, 巡檢이 50명 등으로 조정되었다.[50]

나아가 정부에서는 1895년 5월까지 취해진 지방제도와 조세제도의 개편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1895년 8월 명성왕후 시해사건으로 정계가 다시 개편되자 새로운 개혁을 단행하였다.[51] 이러한 조치는 이들에 대한 中央統制와 아울러 各郡 실정에 맞는 吏胥의 책정이었으며, 또한 지방관 권한의 축소에 따라 자연 地方行政事務도 줄어들었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것이었다. 이는 종래 과다했던 地方吏胥層에 대한 대폭적인 減員이었으며, 吏胥層의 부정· 폐단을 막으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었다.[52]

갑오개화파에 의한 지방제도의 개편은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賦稅조직을 정비하고자 취해진 개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개편을 사주한 일제의 의도는 지방 세력을 대폭 축소시켜 지방을 자기들의

49) 유정현, 「1894-1904년 지방제정제도의 개혁과 이서층 동향」, 『진단학보』 73, 1992, 64쪽.
50) 나주시 문화원편, 『국역 금성읍지』, 나주시 문화원, 1989, 13쪽.
51) 이상찬 앞의 논문, 84~85쪽.
52) 윤정애 앞의 논문, 84쪽.

세력권 하에 두고자 함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하여 종래에 지방관이 장악하고 있던 兵權과 裁判權 그리고 경찰권은 물론 收稅權마저 중앙으로 귀속되고 말았으니, 이는 개혁이란 허울 속에 지방관의 기존 권력을 탈취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53]

이러한 지방제도개혁 조치에 따라 향리층 가운데 상당수가 일자리를 박탈당했고 일부는 소작인으로 전락하였으므로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층으로 자리 잡고 있는 향리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였기에 지방 향리층의 반발은 집권자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이들은 일련의 개혁들이 일제와 그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자신들의 사회망을 위협하는 일련의 개혁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곧 반개화·반침략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행동으로 직접 표출되는 것이 당시 새로운 사회지배층으로 자리 잡고 있던 향리층이 참여한 나주의병인 것이다.

다섯 번째는 향리들이 사회지배층으로서 도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 나주지역 향리 가문들, 특히 그 영수급에 해당하는 戶長 · 吏房 · 都書員을 배출한 주요 가계들은 엄청난 학식과 富 그리고 정치·사회 연결망까지 가진 大家이자 거대한 존재였다. 일반 民의 수준에서는 단순한 향리 집안이 아닌 새로운 지배층으로 비쳐졌던 것이다. 따라서 향리들은 민란의 시대였던 19세기 내내 일반 민들과 대립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당연히 이들을 진압하는 體制守護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54] 체제수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동학농민군에 대항한 수성군 결성과 수성성공에서 잘 나타난다.

---

53) 김상기 앞의 책, 242쪽.

54) 朴眞哲,「韓末 日帝下 羅州地域 鄕吏家門의 動向 - 密陽 朴氏家를 中心으로 -」『大東文化硏究 第44輯』, 2003, 85쪽.

나주 향리층이 동학농민군의 공격을 방어하는 수성군을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수성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들 계층의 결속력이 그 만큼 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나주지역 향리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여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세기 초인 1804년에 班首契와 作隊將官契를 조직하였다. 이 두 종류의 계는 作廳 공적 조직과는 별개로 운영된 사적 조직이었으며, 퇴임 원로들로 구성되는 安逸房, 老契와 같이 향리집단의 사회적 聯網을 보다 공고히 하고 향리집단 내부의 질서를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55] 또한 營吏·京邸吏· 京中各司의 胥吏등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56]

이러한 향리가문들은 당시 향촌 사회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특히 나주지역 향리들은 통혼을 통하여 다양한 인적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다양한 성씨들과 통혼을 하였는데 이는 향리층 스스로 집단전체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 지나친 내부의 경쟁을 자제하거나 꾸준히 해소해 나가고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며, 또한 朴氏家는 和順의 同福 吳氏나 潭陽의 潭陽 鞠氏 등 다른 지방의 유력 향리 가문과도 통혼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것뿐만 아니라『湖南椽房先生案』안을 살펴보면 나주와 인접한 남평의 이족인 丁氏와 고부 殷氏· 능주 具氏와의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주요 鄕吏家 사이에는 通婚을 통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57] 나주의 향리는 이와

55) 나선화, 「조선중·후기 영광 서리집단의 계 운영과 그 의미 -사계와 노계를 중심으로」『지방사학 6권 1호』, 2002, 11쪽.
56)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 행정사』, 1989, 102면~105쪽 참조
57) 박진철 앞의 논문, 44쪽.

같이 나주 지역뿐만 아니라 군현을 넘나드는 통혼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를 자기 가문은 물론 향리집단의 이해를 추구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향촌사회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던 향리층은 급격히 변화해 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향촌사회가 몰락해가자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던 향촌사회의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서 의병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또 하나의 이유인 것이다.

여섯 번째 일반 백성들도 정령이 발포되는 것을 일본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될 것이라 인식하는 사고의 확산이었다.

당시 향촌사회 기반을 구성하고 있던 농민들은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발표되는 다양한 '정령'들이 조선인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일본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朴殷植(1859~1925)의 『韓國通史』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정령이 발표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왜인 행정이라고 하고 지방 관리를 보면 왜관찰 왜군수라 말하며 내각 대신들을 또한 그렇게 불렀다."[58] 이러한 인식은 결국 농민 즉 조선 민중이 생존하기 위해서 개화파의 정책에 저항하고, 일본인들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에 유생양반이 주도하고 일반 민중이 호응하는 의병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것이다.

58) 朴殷植, 『韓國通史』 (중) 번역본, 박영사, 1974, 36쪽.

2. 전기의병 계기와 전개

나주의병 봉기의 직접적인 계기는 참서관 安宗洙(1859～1895)의 개화정책 실시에 따른 반발이 큰 원인을 제공하였다. 나주는 1895년 내정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지방제도 개혁에 따라 전주·남원과 함께 전라도의 관찰부로 지정되었고 관찰사와 참서관 등이 중앙 정부에서 파견되었는데 나주부의 관찰사는 다섯 차례나 교체를 거듭하였다. 그로 인해 나주부의 개화 정책은 관찰사 보다는 부관찰사에 해당하는 참서관 안종수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안종수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農政新編』의 저자이자 개화파 관료로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가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주지역 전체 사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다.[59]

이와 함께 장성의병 봉기도 나주의병에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장성의병을 주도했던 인물은 蘆沙 奇正鎭(1798~1879)의 손자인 松沙 奇宇萬(1864~1916)이다. 그는 명성왕후 시해의 범인 색출과 제거, 단발령의 철폐, 옛 제도로의 복구 등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리어 아관파천이 단행되자, 1896년 음력 정월에 倡義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

1896년 1월말 기우만의 통문이 나주 향교에 전달되었다. “통곡할 밖에 다시 무얼 말 하겠는가?”로 시작된 글에는 의병봉기의 배경과 목적이 밝혀져 있다. 그 요체는 부강하게 해준다는 말로 국왕을 속이고, 개화한다는 말로 패륜을 낳고 있는 일본과 그에 붙어 국왕을 배신한 개화파를 역적으로 규정하여 제거하려는 데 있었다.[60] 기우만의 통문은 음력 1월 29일 다시 도착하였고, 나주의 유생과 향리들 사이에도 논의가

59) 홍영기,「한말 나주의병의 주도인물과 활동」,『한국학 논총 34』,2010, 972쪽
60) 이병수 앞의 책, 109~113쪽.

진행되어 의병봉기를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어 갔다. 특히 나주 향리층의 동향과 관련하여 더욱 주목되는 사실은 이미 기우만의 통문이 도착하기 이전부터 호장 출신 정석진에 의해 의병 봉기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금성정의록』에 의하면

> 이날 밤에 정석진이 촛불을 잡고 왔다. 정석진은 갑오년 동학군을 토벌한 공으로 해남현감으로 새로 제수되었는데 안종수에게 미움을 사서 그 또한 삭발을 피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마침 향교 교임들이 여기 유숙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뒤밟아 쫓아왔다. 그들은 서로 눈물을 뿌리며 화롯가에 둘러앉아서 맹세하며 말하기를 저 역적놈들을 통렬히 꾸짖고 아무리 머리는 깎았지만, 죄는 속죄하지 못할 것이라 말하였다. 그리 한탄하면서 우리 志士들은 차라리 목을 베어갈지라도 의리상 머리는 깎지 말자고 하고 작별하면서 쓸쓸한 정을 가눌 수 없어 했다.[61]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정석진은 해남 군수로 제수된 직후이자 기우만의 통문이 도착하기 이전인 음력 1895년 12월 초순 무렵부터 사족들을 찾아다니며,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사족들을 부추기고 있었다. 이렇게 준비하는 도중에 기우만의 통문이 나주에 도착한 것이다.

나주의 양반 유생들과 향리들은 기우만의 거병 요청에 적극 호응하였다.[62] 즉 기우만의 격문이 전달된 직후인 1896년 음력 2월 1일 거병하기 위한 집회가 나주향교의 東齊에서 열렸다.[63] 1896년 음력 2월 2일 나주 유생 李承壽 등은 前 注書 李鶴相을 의병장으로 추대하였다.

前 注書 李鶴相이 일찍이 효자로 이름이 났고, 또 甲午年 동학 난리에 동

61) 이병수 앞의 책, 106쪽.
62) 홍영기, 앞의 책, 133쪽.
63) 이병수, 앞의 책, 113쪽.

지 羅秉斗와 함께 의거를 하려고 하다가 마침 병에 걸려서 여러 달 동안 누워 있게 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 나라 일이 위태함을 보고 밤낮으로 분격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會盟의 將이 될 만하다. 64)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나주 유생들은 反東學的 입장을 堅持했던 전직 관료를 의병장에 추대한 것이다.

이어 음력 2월 4일 나주의 유생들은 기우만의 창의를 지지한다는 答通을 장성에 보내면서 "근왕하자고 이미 으뜸으로 외쳤으니 선비치고 누가 따르지 않으리오."65)라고 하였다. 이들은 장성의 의병봉기에 적극 찬성한다는 내용과 함께 답통의 말미에 100여 명이 서명한 명단을 첨부하였다.66) 또한 나주에서는 朝官·儒林·鄕吏·軍校들이 연합하여 의병봉기에 적극 호응하기로 합의하였다.67) 나주에서는 기우만이 요청한 대로 거병준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의병의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는 의병장으로 추대된 이학상, 답통을 장성에 전달한 유생 李源緖 · 임긍규, 통문을 지은 이병수, 향교의 교임을 맡고 있던 오재수 · 송종희 등의 유생층과 해남군수 정석진 · 나주부 주사 박상수 · 참모 오득환 · 병교 昇甲杓 등을 비롯한 향리층을 들 수 있다.68)

양반 유생들은 대체로 義陳代表, 文簿作成, 參謀, 軍糧을 담당하거나 義儒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金蒼均을 비롯한 이족들은 左右翼將을 비롯한 軍務를 주로 맡았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향리층이 군사적 실무를 맡아 승리를 거둔 것에서 연유한 듯하다. 따라서 나주의

64) 이병수, 앞의 책, 115쪽.
65) 이병수, 앞의 책, 115~119쪽.
66) 이병수, 앞의 책, 120쪽.
67) 이병수, 앞의 책, 120쪽.
68) 홍영기 앞의 책, 135쪽.

병의 주요 구성원들은 대체로 동학농민군에 맞서 싸운 反東學的 인물들이었다.[69]

특히, 정석진은 향교의 유생들에게 거의를 적극 주장하였고, 장성의병의 나주입정을 저지하려는 참서관 안종수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는 참서관 안종수를 처단한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그가 해남으로 떠난 직후에 그를 배웅했던 金蒼均 · 張佶翰 등 나주의 향리들이 안종수를 제거한 사실로 보아 더욱 그러하다.[70]

지금까지 [부록] 나주출신 의병 명단에서 살펴보았듯이 나주의병의 지도부는 양반 유생과 이족들로 구성되었다. 의병 봉기를 주도하는 초기 과정 즉 통문의 전달과 의병장을 추대 할 때 까지는 양반 유생들이 향교를 중심으로 의병봉기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나 의병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이족들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이는 안종수의 피살과, 나주 의병 창의소가 연리청에 설치되었음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71] 요컨대, 나주의병은 양반 유생과 이족이 연합하여 결성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 나주의병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면, 당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개화정책의 반대와 국왕의 환궁, 단발령 철회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국에 선유사를 파견하여 의병의 해산을 종용하는 한편, 친위대를 파견하여 군사적 탄압도 병행하였다. 그리하여 전라도에는 南路宣諭使에 임명된 申箕善(1851~1909)이 친위대와 함께 파견되었다.[72]

신기선은 畿湖學派로서 신망이 높은 학자였으므로 그가 충청·호남지

---

69) 申箕善, 「奉使日記」, 『申箕善全集』, 아세아 문화사, 1981, 312쪽.
70) 신기선 앞의 책 하, 301쪽.
71) 홍영기 앞의 책, 139쪽.
72) 『구한국 관보』, 1896년 2월 27일자.

역 위정척사계열의 유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그를 선유사에 임명한 것이다. 그는 친위대와 함께 경기·충청도를 거쳐 전라도에 들어와 호남의병의 해산을 촉구하였다. 나주의병은 선유사 신기선이 해산을 권고하고 친위대가 파견되자 음력 2월 26일~27일에 해산하였다.[73]

그런데 나주의병의 주도 인물들은 장성과 담양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나주의병의 배후 조종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해남군수 정석진은 임지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끌려와 효수되었다. 그는 친위대를 따라온 안종수의 동생 安定洙[74]의 농간에 의해 음력 3월 10일에 처형된 것이다. 그리고 영광향리 丁相燮과 징역형을 받은 세 사람도 나주에서 체포되어 처형되었으며, 나주의병의 우익장으로 활동했던 朴根郁을 비롯한 朴化實·金錫均 등은 도망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

이상과 같이 호남에서 봉기한 전기의병의 경우 처벌은 양반 유생보다 주로 향리층에 집중되었으며 처벌 내용도 훨씬 가혹하였다. 이는 당시 나주사회를 주도하는 지배층이 향리였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1896년 지방제도가 23府制에서 13道制로 바뀌었다. 이때 전라남도의 관찰부가 나주에서 광주로 옮겨졌다. 1년 전 나주에 관찰부가 설치된 데에 동학농민전쟁 때 유일하게 수성했던 관아라는 점이 고려되었다면, 다시 1년 후에 관찰부가 광주로 옮겨 가게 된 데에는 나주의병의 봉기가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막을 내린 전기 나주 의병은 비록 그 시기는 짧았지만 당시 개화파의 상징인 참서관 안종수를 처단함으로써 일제의 주도로 이루어진 개화에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상소를 통하여 일본의 조

73) 이병수 앞의 책, 90쪽.
74) 이병수 앞의 책, 90쪽.

선 침략 정책에 대한 반대로 의병이 일어났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측 군대와 경찰이 의병진을 방문[75]할 정도로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었으며, 나주지역 뿐만 아니라 조선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모순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제시하였던 의병으로서 지역적 특수성에 매몰되지 않고 조선사회 중심에서 움직이는 의병이었다.

75) 이병수 앞의 책, 147쪽.

Ⅳ. 후기의병

1. 나주의병장의 활약

전기의병을 주도했던 핵심적인 인물들이 정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나서 나주지역 의병은 완전히 붕괴되는 듯하였다. 후기 의병이 나주지역에서 일어나기 전까지의 약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 나주지역에서는 의병의 움직임이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침묵의 시기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향촌지식인들에 의해서 사회 현실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강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문제 발생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하여 이를 폭넓게 확산시키는 시기였으며, 현실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다시 '의병'이라는 화두를 제시하면서 의병 확산을 위한 잠재적 의병세력을 양성하는 기간이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나주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지식인으로는 겸산 이병수[76]와 後石 吳駿善(1851~1931)[77]을 들 수 있다.

향촌 지식인들의 활동으로 후기 의병을 이끌 지도층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가던 침묵의 시기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침략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었으며, 경제적 침략 또한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침묵의 시기에 확산된 의병 세력들은 일제의 침탈이 더욱 팽창되는 과정에서 폭발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의병이 나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의병들이었다.

나주지역에서 활약한 의병장들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

76) 한영규,「한말일제하 羅州儒林의 현실인식과 글쓰기-謙山 李炳壽(1855~1941)의 사례」,『반교어문연구 22집』, 2003. 참조.

77) 홍영기,「後石 吳駿善의 意兵傳의 저술과 후학 양성」,『역사연구 제45집』,2011, 참조.

나주 출신이면서 나주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한 의병장과 나주 출신은 아니지만 나주지역의 일본 침탈기구 타격을 목표로 활약한 의병장 들이 있다. 전자에는 김준, 김율, 조정인, 권택, 이기손, 노쌍동, 박사화, 박민홍, 박용식 있으며, 후자에는 전해산과 심남일 의병장이 있다.

먼저 나주출신의 의병장들의 활약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나주 출신 의병[78]으로는 金準(1878~1908, 號 竹峰, 일명 金泰元) 과 金律(1881~1908, 호 靑峰)형제가 있다. 동학농민전쟁 때에는 일본과 서양을 배척하는 농민군의 주장에 호의를 가졌으나, 농민군들이 외세를 배격하는 데는 뜻이 없고 "겁탈·노략질"만 하는 것을 보고 동생 율과 함께 수원으로 피해 가서 살았다고 한다.[79] 그는 1907년 9월 16일 전북 고창 문수사에 유진하고 있던 기삼연을 찾아가 합류하였으며, 회맹소가 결성될 때 선봉장을 맡았다.[80]

회맹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형식적으로 단일한 지휘체계를 가졌지만, 실제로는 여러 독립부대들이 연합한 조직이었으며, 이들은 상호 긴밀한 연계를 가지면서도 각기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이다.[81]

김준 역시 1907년 12월 중순경 회맹소에서 분리해 나왔다. 김준 부대의 주요 활동 내용은 일본인 가옥 방화, 일본군 공격 등이었으며, 활동 지역은 나주를 중심으로 한 함평 · 장성 · 영암 · 담양 등지였다. 얼마 후 김율은 다시 김준 부대에서 독립하여 나주를 비롯하여 창평·광주

---

78) 나주출신 의병장에 대한 정리는 배항섭,「중·후기 의병전쟁 시기 나주 지역 향리층의 동향-」,『韓國史學報 제23호』,2006와 홍영기,「한말나주의병의 주도인물과 활동」,『한국학 논총34』,2010을 참고로 하여 정리하였으며, 후기 의병장과 관련된 문헌 자료는 모두 이 두 논문에서 재인용 하였음을 밝혀둔다.

79)「호남의병장열전'의사 김준·전수용 합전'」, 『독립운동사자료집 2 : 의병항쟁사 자료집』, 1982, 639쪽.

8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義所日記」,『독립운동사 자료집 2 : 의병항쟁사 자료집』, 1983, 639쪽.

81) 홍순권 앞의 책, 102쪽.

등지에서 활동하였다.[82]

김준은 회맹소 출신의 의병장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며 전투를 벌여 나갔다. 그의 의병부대는 기세가 맹렬하여 일제 측에서도 그에 대한 대응에 부심하였다. 김준에 대한 일본 관헌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 그 아우 김율과 뜻을 같이 하여 성대한 폭도를 합치고, 혹은 일진회원을 참살하고 폭행 협박으로써 민재를 약탈하고 출몰을 자주하여 크게 광주·나주 간에 발호하며, 기삼연이 죽은 뒤 스스로 대장이라 칭하여 군도를 차고 쌍안경을 가지고 다니며, 그 동작이 기민하여 神出鬼沒, 실로 무시할 수 없어 크게 군대·경찰의 두통거리라 할 수 있다.[83]

황현도『매천야록』에서 말하기를

> 金泰元이 義兵을 일으킨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日兵 수백명을 살해하였다. 이때 그는 부하를 엄하게 다스려 백성들에게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하며, '병사는 본래 精한 것이 귀한 것이며 많은 것이 귀한 것이 아니다. 하물며 오늘의 의병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 수가 많아도 정하지 않으면 다만 실수만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용한 장수는 30~40명에 불과하였다. 그는 그들 중 도태시키기도 하고 修鍊도 시켜 모두 용감하게 전사할 수 있는 병사들뿐이었다고 하였다.[84]

이러한 기록들은 김준의 의병부대가 정예병을 중심으로 활발한 유격전을 전개하였음을 보여준다.

---

82) http://db.history.go.kr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6 > 隆熙 三年(一九〇九·明治四二) > (一)一一月, 全羅道 > 暴徒巨魁逮捕의 件

83)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폭도사 편집자료」, 『독립운동사 자료집3 :의병 항쟁사 자료집』, 1983, 555쪽.

84) 황현 앞의 책, 781쪽.

김율은 형인 김준과 함께 활동하다가, 얼마 후 분진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1907년 말경에 일본군에게 크게 패하자 다시 형과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85] 일제는 김율이 의병에 투신하게 된 계기와 활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 기삼연의 문하생으로 박사라 칭한다. 그가 폭동을 일으키게 된 동기는 1907년 8월 중 경성에서 내려 보낸 신문을 읽고, 그 기사 중 한국은 결국 일본이 병탄한바 되어 한국민은 점차 일본인에게 구축되어 드디어는 海島로 流亡하게 된다는 것을 보고 크게 개탄하여, 앉아서 타인의 손에 죽느니보다 차라리 스스로 나아가 죽은 것만 같지 못하다 하고, 드디어 기삼연과 기맥을 통하여 따로 한 기치를 세우고 형 김태원과 한 가지로 광주·나주를 중심으로 하여 이웃 군에 출몰하여 한때는 그 부하가 5백에 달하여 그 세력이 김태원 이상이었으나, 군대·경찰의 추구가 더욱 엄밀하므로 점차 그 세력이 쇠약한 끝에 1908년 3월 30일 광주경찰서에서 그 잠복소를 탐지한 바 되어 드디어 체포됐다.[86]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김율의 의병부대가 한때는 5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컸으며, 나주와 광주 일대에서 활동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908년 3월 광주 정동 전투에서 김율이 체포되었고, 김준은 4월25일 광주 서방 약 40리 지점에 있는 박산에서 토벌대와 전투 중 전사하였다.[87]

김준 의병진에서 활약한 나주 출신 인물로는 趙正仁(1872~1909)과 그의 동생 趙正龍이 눈에 띈다. 조정인의 호는 丹巖, 본관은 한양, 나주

---

8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호남의병장열전」, '의사 김준·전수용 합전',『독립운동사자료집 2 : 의병항쟁사자료집』,1982, 641쪽.
8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폭도사편집자료」, 『독립운동사자료집 2 : 의병항쟁사자료집』,1982, 556쪽.
87) 李一龍 譯,『秘錄韓末全南義兵鬪爭史』,全南日報社,1977, 772쪽.

서부면 명당거리(현 나주시 산정동)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여 장수감으로 지목되었으며 넉넉한 가세에다 미곡상을 경영하여 재력이 있었다. 의병들에게 군량을 지원하다가 1907년 12월 16일 김준 부대에 합류하여 활동하였다.[88] 이들은 함평 나산면 이문리에 탄약 제조소를 만들어 놓고 나주를 비롯한 함평, 광주 등지에서 활약하였다.[89]

김준의 전사 이후 독립한 그의 부대는 5백여 명 정도의 규모로 황의군과 녹의군으로 각각 편제되어 있었다.[90] 1908년 6월 15일 나주 佳山(삼가면 신촌)에서 沈守根과 함께 의병활동에 사용할 탄약을 제조하던 중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었고, 체도된지 6개월 만인 1908년 12월 15일 大審院에서 교수형이 확정되고 이듬해인 1909년 1월 25일 대구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91]

이외에도 김율과 함께 활동한 權寧會(1885~1910)가 있다. 권영회는 남평군 郁谷面 九禮洞 출신으로 본명보다는 이명인 權澤으로 더 알려져 있었다. 그는 농업에 종사하는 유생으로 의병에 참여할 당시 나이가 25세였다. 최익현의 제자로 그가 대마도에서 사망한 소식이 전해지자 의병에 뛰어들었다. 1907년 6월 기삼연 부대에 들어가 활동하였으며, 기삼연이 체포된 후 김율의 部將으로 나주 부근에서 활동하다가 1908년 7월 26일 沈南一에게 招致되어 그의 謀士 내지 書記가 되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曺京煥에게 초치되어 그 부하가 되었고, 11월에 그 서기가 되어 12월까지 활동하였다. 이어 12월경에는 朴珉洪이 이끄는 의진에 들어가 1909년 3년경까지 나주 및 남평 일대에서 활약하였다.[92]

---

88) 나주군사편찬위원회, 『나주군지』, 1980, 198쪽.
89) 금성시사편찬위원회,『금성의 얼』, 1982, 34쪽.
90) 나주군지편찬위원회,『나주군지』, 1980, 51쪽.
91)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獨立運動史資料集』別集1卷, 1973, 572~573·814쪽.
92) http://db.history.go.kr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5 > 九. 隆熙 三年(一九〇九·明

이후 조경환이 1909년 1월 중순 雲水洞에서 전사하고,[93] 박민홍까지 전사하자 장흥군 읍내의 救世軍에 가입하여 이름을 鄭贊會라고 바꾸고 구세군 영내에 숨어 있다가 1909년 9월 25일 체포되었다. 심남일, 박민수의 부하로 활동할 때는 나주, 남평, 장흥, 광주, 보성 등지에서 조경환과는 함평, 장성, 영암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체포될 때 자신을 '全羅南北道 義兵將의 都大將'이라고 자칭하였다고 한다.[94]

역시 나주 출신인 李起巽(1877~1943)은 기정진 계열의 유생이었으며, 별명은 李安石 호는 錦齊였으며, 1908년 2월경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기손 부대에는 선봉장 이화삼 이하 약 30명에서 40~50명의 의병이 활동하였으며, 이장 및 면장, 일본 헌병대를 공격하였다. 이들은 洋銃 1정, 화승총 11정을 갖고 있었으며, 대개 농부로 위장하여 활동하였다.[95] 이기손은 1909년 8월 전후한 시기에 부대를 해산하고 , 외국으로 도피하기 위해 군산항에 도착하여 마침 하와이로 망명 중이던 李承晩(1875~1965)을 만나 함께 망명을 계획하였으나 중국으로 망명하여 5년 동안 러시와와 만주를 넘다들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다가 귀국하여 전북 금산에 은거하여 高宗(1852 ~ 1919)을 위한 祠宇를 세우는 등 근왕적인 성향을 고수한 인물이었다.[96]

이 외에도 나주 출신의 주요 의병으로는 盧炳友(盧雙同, 盧一堂)이 있다. 노병우에 대해 일본 관헌 측에서는 1909년 3월경부터 의병에 가담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미 1908년 3월 이전에 심남일 부대의 후군장

治 四二) > (四) 十月, 全羅道 > 暴徒大討伐 成績

93) 李一龍 譯,『秘錄韓末全南義兵鬪爭史』,全南日報社,1977, 801쪽.

94) http://db.history.go.kr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5 >九. 隆熙 三年(一九〇九·明治 四二) > (三) 九月, 全羅道 > 羅州警察署長 警部

95) http://db.history.go.kr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5 >九. 隆熙 三年(一九〇九·明治 四二) > (二) 八月, 全羅道 > 羅州警察署長 警部

96) 홍순권 앞의 책, 382쪽.

으로 활동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97] 노병우는 10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영암군 북면에 근거하며 그 부근에서 활동하였고, 화승총과 엽총으로 무장하였다. 1909년 6월 19일에는 영암군 北一終面 古介嶝店 주막에 '湖南義所 盧一堂'의 명의로 광고문을 내붙이기도 했다.[98]

나주 출신의 의병 지도층 가운데 향리가문 출신으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인물은 박민홍과 박사화였다.

한말 나주 지역의 대표적인 향리 가문인 밀양 박씨의『密陽朴氏淸齊公派家乘譜』에 따르면 朴珉洪(1869~1909)은 1869년생으로 譜名은 憲洙이고 자가 玟洙이다. 동향 사람들의 호가 洪자 돌림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민홍은 그의 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친부는 1894년 동학농민 전쟁 때 수성군에 가담하여 별장 직책을 맡았고, 1896년 의병에도 우익장으로 가담하였던 根郁이다. 그의 양부는 박근욱의 형이자 1896년 나주의병에 가담하였던 贊郁(化實)이다.[99]

朴士化(1880~1910)는 1880년생으로 본명은 士過, 자는 사화, 호는 士果이며 그의 부친은 錦郁이다. 금욱은 근욱, 찬욱 형제, 그리고 동학농민전쟁 당시 수성군별초군관을 맡았던 상욱과 재종간이고 사화와 박민홍은 8촌간이 된다.[100] 또한 이들은 한말 장흥군수를 지낸 朴在珪와 같은 집안으로 상욱, 근욱, 금욱, 찬욱은 박재규의 족질이 된다. 일본 경찰에서는 1909년 2월 27일 박민홍을 사살한 뒤 올린 보고에서 박민홍이 '장흥군수 박재규의 從弟'라고 보고하였으나, 이는 잘못 파악한 것으로 박민홍은 박재규의 족손이다.[101]

---

97)「심남일 실기」,『독립운동사자료집2 ; 의병항쟁사자료집』, 573~576쪽.
98) http://db.history.go.kr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5 >九. 隆熙 三年(一九〇九·明治 四二) > (二) 八月, 全羅道 >賊魁에 關한 件
99) 배항섭의 앞의 논문, 205쪽.
100)『密陽朴氏淸齊公派家乘譜』, 1988, 27~37쪽.
101) http://db.history.go.kr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3 > 七. 隆熙 三年(一九〇九·明

이외에도 박민홍의 동생으로 박민홍 부대의 재무장을 담당하였던 朴汝洪이 있다.[102]『密陽朴氏淸齊公派家乘譜』에 따르면 박민홍에게는 4명의 남동생과 1명의 여동생이 있었고 이 가운데 바로 아래 동생 憲陽(자는 陽洙)이 1879년에 태어나 1909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의병에 가담한 박민홍의 동생은 헌양인 것으로 생각되며, 여홍은 헌양의 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103]

그는 1909년 2월 26일 朴士化 姜武京과 함께 250명의 의병을 이끌고 남평군 竹谷面에서 일본헌병 및 경찰 관원과 교전 후 패하여 영암 방향으로 70여명의 의병과 함께 후퇴하였다가 2월 27일 영암 동북 약 3리 고지대(靈岩郡 之井面 金山)에서 영암 수비대와 교전 중 전사하다.[104]

박민홍 부대에서 활동한 나주 출신 주요 의병 가운데는 박민홍이 전사한 후 독립하여 독자적인 의병활동을 전개한 羅成化(나성언, 1881 ~ 1910)가 있다.[105] 나성화의 신분은 알 수 없으나, 그는 나주군 馬山面 方之橋(左倉 혹은 왕곡) 출신으로 이명으로는 聖化·相集등이 있다. 박사화, 강무경 등과 함께 심남일 부대의 후군장(부장)으로 의병활동을 시작하였다.[106] 『전라남도지』에 따르면 나성화는 홍종우로부터 권총과 탄약을 탈취하기도 했으며, 그가 이끄는 의병진의 규모는 400여 명으

治 四二) >(三) 三月, 全羅道 > 暴徒에 關한 件 報告

102) http://db.history.go.kr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3 > 七. 隆熙 三年(一九〇九·明治 四二) >(二) 二月, 全羅道 > 捕虜訊問調書羅州郡 羅州邑 南門外居

103) 배항섭의 앞의 논문, 205쪽.

104) http://db.history.go.kr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3 > 七. 隆熙 三年(一九〇九·明治 四二) >(二) 二月, 全羅道 > 一. 二月 一日 午

105) http://db.history.go.kr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4 > 八. 隆熙 三年(一九〇九·明治 四二) >(一) 四月, 全羅道 > 四月 十三日 羅警秘收三二八號의 二의 續報「5. 羅警秘收 第 三0四號의一」, 隆熙 三年 四月 二日.

106) 「심남일실기」,(『독립운동사자료집 2 : 의병항쟁사자료집』, 573쪽.)에 따르면 부대의 주요 구성원 중 박사화, 노병우, 나성화, 김도숙, 권택 등이 나주출신이다.

로 부장에 정인면, 도집사에 양룡, 호군에 정두면, 종사에 안낙삼, 도서기에 양준호, 운량에 신학경, 이교민이 각각 포진되어 있었다고 한다.[107]

나성화는 1909년 10월 12일 나주 郁谷面 九川里에 잠복하였다가 영산포 일본 분견대원에게 체포되었다.[108] 나주 출신 의병 가운데 박사화와 나성화는 심남일 전해산 안규홍 등과 함께 일제의 이른바 "남한대토벌"이 끝날 무렵까지도 활동한 몇 안 되는 주요 의병장이었다.[109]

향리출신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의병장으로는 朴鏞植이 있다. 박용식은 원래 나주군 서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10] 또한 박용식은 인쇄시설까지 갖추고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하며 나주, 해남, 영암, 강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111] 그가 체포될 때 압수된 인쇄물이 200여매, 刻板이 40여매, 목제활자가 수천 개에 이르렀다. 또한 그는 조각자, 인쇄자, 배포자를 따로 두고 조직적인 선전활동을 수행하였다.[112] 박용식은 1909년 6월 2일 체포되어[113]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14]

나주출신이 아니면서 나주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인물로는 全海山(1879 ~ 1910)과 沈南一(1871~1910) 의병장이 있다. 전해산은 전북 장수 출신으로 본명은 基洪, 字는 垂鏞이며 자칭해서 海山이라 했기 때

---

107)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전라남도지』7, 1993, 198쪽.
108) http://db.history.go.kr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5 > 九. 隆熙 三年(一九〇九·明治 四二) > (四) 十月, 全羅道 > 左記
109) http://db.history.go.kr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7 > 隆熙 四年(一九十〇·明治 四三) > (一) 一月, 全羅道 > 第二案 全羅南道警察部長 앞
110) http://db.history.go.kr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3 > 七. 隆熙 三年(一九〇九·明治 四二) > (三) 三月, 全羅道 > 匪徒에 關한 件 報告 .
111) http://db.history.go.kr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4 > 八. 隆熙 三年(一九〇九·明治 四二) > (三) 六月, 全羅道 > 內亂罪逮捕의 件長城郡 南二面 鹿津 居 判木彫刻者 金鳳儀(三十七歲) 印刷板을 所持한 者 印刷板 四十板 現存
112) 홍순권 앞의 책, 125~126쪽.
113)『한국독립운동사 자료14 ; 의병편 7』, 597쪽.
114)「大韓每日申報」, 1909年 7月 6日.

문에 해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집안은 양반이었지만 10대 이상 출사한 일이 없어 농민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전형적인 殘班 유생이었다.

그는 임실에서 靜齋 李錫庸(1877~1914)과 같이 의병을 일으켰는데 김준의 활약이 크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돕고 싶어 내려왔는데 김준이 이미 전사한 후였다. 이에 전해산은 흩어진 의병들을 수습하여 대장으로 추대되었는데 선봉으로 해산군의 參尉였던 鄭元執을 삼고, 金元凡을 중군장, 尹東秀로 후군장, 朴永根으로 호군장, 李凡辰으로 都砲將을 삼아서 1908년 8월부터 1909년 4월까지 독자적인 투쟁을 실시하였다.[115]

전해산 의병부대 초창기에는 명령계통이 잘 서지 않고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있어 작전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聲勢만 울리면서 야간활동을 주로하고 산악지대에 본거를 정했다. 그러나 차츰 민폐를 없애고 필요불가결한 부담만 시켰으며, 군자금을 부호들에게 부과시키거나 관리들의 公金을 몰수하여 충당했으므로 신망이 두터웠고 기강을 확립해 나갔다.

이에 전해산이 거느린 의병이 나타나면 주민들은 삶은 돼지, 술, 떡을 대접하는 기록이 자주 보이고, 전해산 역시 都砲에 비천한 출신인물을 임명하는 등 농민들과는 물론이고 의병대열 자체 내의 人和에도 깊은 관심을 쏟았다.[116] 이러한 과정속에서 주민과 혼연일치된 전해산의 義陳이 세력을 유지했던 장성, 영광, 나주, 함평, 부안 등지에서는 일본군, 경찰 수비대들이 활동하기 어려웠고 土倭의 무리들인 친일부호, 일

115) 전해산과 관련된 자료는 강길원, 「海山 全垂鏞의 抗日鬪爭」,『역사학보 제101집』,1984를 바탕으로 참조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116) 이상식,「한말의 의병항쟁 - 전남지방을 중심으로 -」,『역사연구4』,1990, 96쪽.

진회원, 세금영수원, 해산군인을 빙자한 부랑자, 가짜 의병 등은 근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117]

이렇게 外的인 약탈과 만행에 대한 보호, 家産을 전제로 한 賭租의 징수, 궁벽한 농촌 주민들에 대한 후생사업, 당시 日本을 통해 들어오고 있던 洋物의 유통을 차단시킴으로서 농촌경제의 급격한 파탄을 막을 수 있게 했던 變動期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의병들에 의한 치안유지는 얼마간 민생의 안정을 이루게 했던 한국인들의 지배에 대한 경험이었다. [118]

전해산은 훈련되지 않은 군사, 전술에 밝지 못한 지도부, 빈약한 무기, 軍需에도 불구하고 장성, 영광, 나주, 무안, 함평 등 당시 호남 24개 군중 중서부 지방을 완전 장악했었다. 전해산이 활약한 지역을 개괄해 볼 때 일본군이 소위 '남한대토벌작전'을 위한 방편으로 천안과 영산포에 헌병분견대를 배치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행동을 전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는 듯하다.[119] 전해산 의병부대는 1908년 9,10월경이 전성시대로 활약이 컸으나 그후 누차 토벌대에게 격파되어 1909년 4월 하순에 이르러 남은 부대를 해산하고 再起를 위해 은신했다가 고향에서 체포되었다.[120]

전해산이 활동하던 시기에 전해산과 함께 일본측으로부터 '暴徒巨魁'라고 불리었던 인물이 심남일 의병장이 있었다. 심남일의 본명은 守澤, 자는 德弘이다. 南一은 그가 스스로 지은 호인데 사람들은 그를 전남제일의 장수라는 의미로 그를 남일로 불렀다고 한다.[121] 그는 남달리 義

117) 강길원 위의 논문 49쪽.
118) 강길원 위의 논문 59쪽.
119) 강길원 위의 논문 38쪽.
120) 「한국독립운동사1」, 796~8쪽.
121) 홍영기,「구한말 심남일 의병의 조직과 그 활동」,『동아연구 제17집』, 1989, 634쪽.

氣를 지녔던 것 같다.『沈南一 實記』에 의하면

> 남일 같은 사람은 외딴 시골의 한미한 선비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문을 닫고 집에서 살며 몸을 보전해도 옳지 않은 바가 없다. 그러나 단지 충의로써 몸을 돌보지 않고 소매를 걷고 일어나 3년 동안이나 의병을 이끌었다.[122]

이는 바꾸어 말하면 시골의 이름 없는 유생에 불과한 그가 일본 세력의 침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음을 의미한다.[123] 그는 처음에 자기 지역에서 의병을 모집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독자적인 의병거사 계획을 뒤로 미루고 이미 활동 중에 있는 의병부대에 가담하였는데 그 부대가 김율 의병진이다.

그는 1907년 말에서 다음해 봄까지 김율의 部將으로 활동하다가 김율 사후에 독자적인 의병부대를 형성하여 의병장이 되었다. 그가 김율의 휘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맡았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김율이 부장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김율 의병부대의 지도부를 형성하였으리라 믿어진다. 그러던 중 1908년 3월 말에 의병장 김율이 일제에 체포되자 심남일은 흩어진 의병을 불러 모아 새로운 의병부대의 조직에 나섰다.[124]

이렇게 조직된 심남일 의병부대의 활동은 몇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친일세력을 제거하는 활동이다. 군수·세무관 그리고 각 면의 공전영수원들이 거두는 국세가 일본군의 군사비에 충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한다면 왜적과 동류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다. 그

---

122) 「沈南一 實記」,『독립운동사 자료집』2, 1970, 591쪽.
123) 홍영기 앞의 책, 296쪽.
124) 홍영기 앞의 책, 299~300쪽.

는 다른 통문에서도 주민들에게 납세거부투쟁을 유도하였으며, 아울러 일진회원들로 구성된 자위단과 한인 헌병보조원들도 일본세력과 함께 제거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125]

요컨대 심남일 의병부대의 제거 대상은 국세의 납부를 강요하는 군수와 공전영수원 그리고 자위단원, 한인 헌병보조원 등으로 압축된다. 바로 이들이 일제의 앞잡이, 즉 친일세력이었으므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특히 납세거부투쟁에 중점을 두었다. 그것은 각종 세금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의병활동의 재원 마련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의병을 빙자한 도적을 퇴치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의병을 빙자한 도적의 퇴치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그들의 의병활동에 정당성이 부여되었을 것이고 나아가 심남일 의병부대는 주민들로부터 한층 신뢰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반일투쟁활동, 즉 일본세력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심남일 의병부대는 먼저 일본군경이 種痘를 빌미 삼아 무고한 한국인을 살해한다는 점을 크게 부각시켰다.[126] 심남일 부대는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약 200명 내외의 병력을 보유하였으며, 彈藥이나 火藥은 대부분 스스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들은 일정한 근거지를 갖지 않은 상태로 활동하였으나 주된 활동지역은 나주와 강진을 축으로 하는 전라남도의 중남부 지방의 가장 대표적인 의병장이 되었다. 이에 일본측의 대응도 집요하였는데, 變裝偵察隊와 전담討伐隊등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전혀 새로운 이른바『南韓暴徒大討伐戰』이 실시되었다. 결국 심남일은 1909

125)「喩土倭文」·「警喩各處補助員」·「告示各郡面長與領員與里長」,沈南一實記」,『독립운동사 자료집』2, 1970, 915~917쪽 참조.
126) 홍영기 앞의 책, 313~315쪽.

년 음력 7월말 부대를 해산하고 잠복해 있다가 선봉장 강무경과 함께 10월 9일 체포되었다. 이로써 일본의 대규모 군사작전도 일단락 되었다.

지금까지 나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의병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며 이들의 활동상황을 바탕으로 후기의병들의 특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127]

첫째, 나주의병은 무기의 개조와 신무기의 확보를 통하여 투쟁역량을 강화하였다. 전기의병은 대체로 火繩銃을 주무기로 싸웠으나, 후기의병 당시인 1908년 4월에 나주의병들은 뇌관식 격발장치의 개발에 성공하여 전력이 크게 향상되었다.[128]

둘째, 나주의병은 지휘체계의 확립과 엄정한 軍紀를 확립하였다.[129] 전기 의병과 관련된 자료에는 그들이 "無紀律", "烏合無紀[130]"였다는 기록이 자주 보인다. 즉, 당시의 의병들은 대체로 지휘체계가 확립되지 않거나 기율이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엄정한 규율은 당시 고통을 받고 있던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서 민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의병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의병들이 작전수행과 의병세력의 확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즉 의병이 자신들을 위해 싸우는 부대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셋째, 이들은 전술면에서 초기에는 정면공격을 통한 邑治 점령에서 차츰 유격전술로 전환하였다. 전기 의병의 경우에는 정면공격을 시도하여 거점을 확보한 후 北上하는 이른바 '北上之計'를 추진하였다. 이에

127) 홍영기, 「정미의병기 호남지방의 의병 활동」, 『지역문화 연구 6』, 2007을 참조하여 정리함.
128) 『한국독립운동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81, 282~283쪽.
129) 이는 호남회맹소, 김태원, 심남일 의병진에서 잘 나타난다.
130) 황현 앞의 책, 380쪽.

반해 후기의병은 지형지물을 이용한 유격전술로써 일제의 침략에 맞섰다.

넷째, 나주의병은 이른바 '掎角之勢'의 형성에서 義陳간의 연합전선으로 전환해갔다. 그리하여 나주의병은 연합투쟁 내지 공동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상당한 전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는 전기 의병 당시 분산적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반성의 결과와 발전적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의병간의 연합이 가능한 이유는 계급적인 모순이 해결되었으며, 공동의 적인 일본의 침략을 물리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만큼 호남 어느 지역이나 일제의 침탈은 만연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섯째, 이들은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갔다. 의병 항쟁 초기에는 주민과의 관계를 다소 소홀히 한 듯하다. 하지만 후기의병 시기에는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에 적극적이었다. 미곡의 유출금지, 가렴주구의 관리 처단, 친일세력의 제거, 납세거부투쟁의 확대 등과 같은 安民的 의병활동이 그것이다. 이로써 주민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향토를 수호하려는 나주의병의 전략과 표리를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이들은 출신지를 의병활동의 주된 근거지로 삼아 주민들을 괴롭히는 가짜 의병과 부호의 토색, 관리의 가렴주구 등을 해결해 주었으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주민들은 의병들에게 숙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때로는 주민들이 스스로 전투에도 가담하여 일본세력에 맞서 힘을 보태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나주지방의 후기의병은 장기항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나주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한 의병장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호남의병은 1908~1909년에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2. 남한대토벌 작전과 나주민의 대응

일제는 시종일관 의병을 '暴徒'라고 지칭하였다. 의병을 탄압하던 실상을 전해주는『暴徒에 관한 編冊』·『暴徒史編輯資料』·『朝鮮暴徒討伐誌』·『全南暴徒史』등 의병을 다룬 일제측 자료집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는 의병을 '폭도'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일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병을 '화적이나 도적의 무리와 다름없는 폭력적 무리'로 즉 '假義'들이라는 점을 크게 강조하였다.

그럼으로써 일제는 의병 탄압의 명분을 축적하고, 나아가 군경에 의한 무력행위를 합리화했던 것이다.[131] 전기의병 당시 정부는 선유사를 파견하여 의병을 해산하였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親衛隊와 鎭衛隊 병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해산하였다. 그 과정에서 개화파 관리를 처단한 의병부대에 대해서는 주모자들을 처벌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나주의병이었다.

19세기말 전기의병이 일어났을 때 진압 주체는 조선 정부였다. 따라서 일본군은 의병 진압에 적극 개입하지는 않았다. 청일전쟁에 참전한 일본군 일부가 한반도에 주둔 중이었지만, 그들이 직접 의병 진압에 나선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132] 당시 일본군은 의병 진압에 나선 친위대와 진위대의 병참을 지원하거나 군사적 고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전기의병 당시에는 의병들이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다.

후기 의병이 격화되자 조선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일제는 의병을 제거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탄압작전을 실시하였는데, 선유사를 이

131) 홍영기 앞의 책, 369쪽.
132) 李求鎔 ,「韓末義兵抗爭에 대한 考察 - 義兵鎭壓이 段階的 收拾對策-」,『國史館論叢』23, 1991, 200쪽.

용한 방법, 귀순활동을 장려한 방법, 일본군을 직접 투입하는 방법, 자위단을 구성하여 진압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1907년 8월 이후 후기의병이 크게 확산되자 정부는 다시 선유사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전기의병과는 달리 후기의병 활동은 더욱 고조되었고, 선유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만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07년 말부터 이듬해 초에 걸쳐 선유사를 선유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각 도에 파견하였다. 이때에도 정부는 기대만큼의 선유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선유활동과 함께 정부는 의병의 귀순을 적극 장려하였다. 이는 의병의 귀순과 선유사 파견을 짝지어 추진함으로써 이중의 효과를 거두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귀순 활동도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일본군은 의병 진압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일제가 의병 진압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대한제국의 식민지화를 추진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었다. 즉 일본 閣議는 1904년 5월 말에「帝國의 對韓方針」과「對韓施設綱領」등을 채택함으로써 군사적 방법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화를 본격화하였다.[133] 이는 식민지화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인 의병을 진압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목표하는 조선의 식민지화 일정에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의병을 진압하려고 했으며 그 대표적인 방법이 군사력 동원이었던 것이다.

조선에 파견된 일본의 군대는 크게 3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대는 '韓國駐箚隊'(이하 주차대로 약칭)로 이 부대는 전기의병운동 세력이 약화되어 대부분의 의병부대가 해산했을 즈음인 1896년 5월 러·일간에 이른바 '고무라·웨베르 각서'가 체결되면서 러일

133) 鄭昌烈, 「露日戰爭에 대한 韓國人의 對應」,『露日戰爭前後 日本의 韓國侵略』, 일조각, 1986, 210~211쪽.

전쟁 개전 당시까지 조선에 주둔할 근거를 갖게 된 부대로 일본군은 스스로 이 부대의 명칭을 '韓國駐箚隊라고 고쳤다.[134]

일본군 주차대는 1896년 5월, 종래의 일본군 수비대가 철수하고 평시편성 1개 대대가 새로 파견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들은 1년 교대제로 조선에 와서 머물면서, 공·영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임무로 삼았다. 그리하여 부산과 원산에 각 1개 중대가 분파되었고, 나머지 부대는 京城에 주둔하였다. 이밖에 일본군 주차대에 소속된 일본군 병력으로 군병원 및 군용전신 경비 목적인 臨時陸軍電信府와 임시헌병대가 있었다.[135]

1906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일본 군경이 적극적인 의병 진압책이 점차 효력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후기의병 기간에는 이미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의병 진압의 임무는 朝鮮駐箚軍과 헌병대를 비롯한 일본 군경에 이양된 상태였다.

또 다른 부대로는 기병연대가 있었는데, 1907년 10월초 파견된 기병연대는 한국주차군 사령군 長谷川好道가 본국 정부에 증원 요청하여 파견된 부대였다. 이때의 '임시기병파견대'는 경성, 조치원, 대구, 전주 등 주로 남부지역에 배치되었는데, 이는 의병 활동 중심이 충청 이남의 남부지역으로 이동한 탓으로 이에 대하여 기동성이 있는 대응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의병들의 거점 이동에 따라 전라남북도에 배치되었다가 '남한대토벌 작전'을 수행하고 대토벌의 임무를 마친 직후인 1909년 11월에 철수하였다.[136]

기병연대의 파견으로도 부족하여 한국주차군은 1908년 5월 병력의

---

134) 홍순권,「한말 일본군의 의병 학살」,『제노사이드연구 제3호』, 2007, 135쪽.
135) 홍순권 앞의 논문, 137쪽.
136) 홍순권 앞의 논문, 138쪽.

증파를 본국에 다시 요청하여 보병 2개 연대를 더 지원받았다. 그중 1개 연대인 제7사단 27연대는 원산에 상륙하고, 다른 1개 연대인 제6사단 23연대는 마산에 상륙하여 각각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의 의병 진압 병력을 보강하였다.[137]

일본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여 헌병과 경찰 병력을 증가하여 1906년 일본의 한국주차헌병대 병력은 1,162명으로 증가되었고 이들이 2,679명의 경찰을 보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1907년에는 헌병을 2천 명으로 두 배 늘리고, 경찰도 4,952명으로 늘려 1908년에는 다시 헌병을 6,608명으로 3배 이상이나 더 늘리고 경찰은 4,991명 선을 유지하였다. 일본군은 이 밖에 의병 진압을 위해서 1908년 6월 조선인 헌병보조원 4천여 명을 모집하여 일본 헌병의 앞잡이로 삼았다.[138]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는 친일 단체인 일진회를 앞세워 마을마다 이른바 자위단을 조직하게 하고, 일본군과 경찰이 의병을 수색하거나 '토벌'할 때 동원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자위단 조직은 이후 활동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주민들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해지고 만 것으로 판단된다.

나주지역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위단 조직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오히려 자위단에 속한 사람들이 의병과 긴밀히 협조하는 모습도 보이며, 이들은 나주 군민회를 조직하여 일제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제에 저항하였다.[139]

1908년 3월 이후 의병과 한국주차군 등의 충돌이 급증하였다. 특히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와 호남지방에서 잦은 충돌이 일어난

137) 유한철,「일제'한국주차군'의 한국 침략과정과 조직」,『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160쪽.
138) 유한철 앞의 논문, 148~149쪽.
139) 배항섭 앞의 논문, 227~230쪽.

것을 알 수 있다. 여단병력과 기병대를 파견하고 헌병을 증원했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본군의 의병진압 방식 또한 매우 잔혹하였다. 그들은 의병들을 발견하면 닥치는 대로 무자비하게 살해하였으며, 의병들의 거점이 될 만한 장소는 그곳이 일반 촌락이냐 사찰이냐를 가리지 않고 방화하고, 의병이나 의병활동을 방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주민까지 재판에 회부하지도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부록] 나주출신 의병 명단에서 보이는 것처럼 나주지역에서도 많은 전사자가 나오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군의 대응방식은 이제까지 관망하면서 의병에 가입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까지 의병에 가입하게 만들었다. 결국 의병 탄압은 또 다른 의병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통감부와 한국주차군 관계자들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열린 회의가 1908년 5월 2일의 統監府會議였다. 이 회의에서는 의병투쟁에 대한 종합 대책이 논의되었다. 회의 직후 나온 첫 조치는 병력을 다시 증강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조치는 以夷制夷 戰略의 일환으로 채택된 憲兵補助員制度였다.[140]

물론 나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지방의 의병투쟁이 왕성해지자 일본군은 꾸준히 탄압작전을 전개하였다. 가령 1908년 2월 지리산 일대의 의병을 대상으로 제2연대장의 지휘 아래 경남의 일본군 병력이 작전한 경우, 2월 21일부터 5일간 제2연대장의 지휘 아래 영광, 장성, 고창, 태인, 정읍 일대에서 벌인 제2대대의 작전, 기병대가 2월 23일부터 3일간과 4월 19일부터 15일간 전남의 서남부와 남서부 일대에서 벌인

140) 신주백,「湖南義兵에 對한 日本 軍·憲兵·警察의 彈壓作戰」,『역사교육 87』,2003, 225쪽.

작전, 9월 30일부터 고부에 주둔한 기병대가 나주일대까지 남하한 작전, 12월 1일부터 10일동안 제38관구 헌병대가 광주, 장성, 담양, 옥과, 창평, 곡성 일대에서 벌인 작전, 같은 달 14일부터 영산포 헌병분대가 管區地域에서 8隊 縱隊로 벌인 작전, 같은 시기 3隊로 나뉜 광주수비대가 광주, 선암, 사창, 장성, 함평 등지에서 2주 동안 벌인 작전 등을 들 수 있다.[141]

그런데 군, 헌병, 경찰의 작전에도 불구하고 호남지방 의병이 크게 위축되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다음 세 가지 점도 빼 수 없다. 먼저, 한국주차군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당시까지 중부지방의 의병투쟁에 비해 호남의 의병투쟁이 조금 덜 활발했기 때문에 호남의 군병력은 기본적으로 적었다. 또 전남은 도로사정이 나빴기 때문에 탄압작전의 효율성이 다른 지방에 비해 그만큼 떨어졌다.

두 번째 한국주차군의 작전상의 한계다. 의병의 입장에서 작전이 벌어지는 공간에 일시적으로 숨어 있거나 다른 곳으로 잠시 이동하면 그만이었다. 때문에 작전을 통해 의병을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작전구역에서 의병을 쫓아버리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이 호남의병의 특징이다. 호남의병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에서 일어난 주요 의병부대와는 달리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병과 직접 연관이 없었다. 오히려 호남의병은 출신지역을 중심으로 확고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부대가 더 많았다. 또 안규홍 부대처럼 대오내에서 양반과 천민 사이의 신분적 갈등이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비록 느슨한 형태이지만 부대간의 연계를 유지한 채 연합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142]

---

141) 李一龍譯,『秘錄韓末全南義兵鬪爭史』,全南日報社, 1977, 36, 43, 61, 66, 70 ~ 71 ,76, 79쪽.
142) 신주백 앞의 논문, 232~233쪽.

한국주차군과 통감부는 1909년 들어 호남의병을 탄압하기 위해 군, 헌병, 경찰기관을 증설하고 인원을 집중시키기 시작하였다. 남부수비관구를 맡고 있던 제12여단은 제14연대 제1대대의 본부(대구)와 제2중대를 1909년 2월 7일 南原으로 이동시켰다. 같은 날, 거창에 있던 제1중대도 순천으로 이동시켰다. 헌병대도 1909년 1월 편제를 개정하여 전북의 서북부와 충남의 일부를 관장하는 群山管區를 신설하였고, 전남의 영산포 헌병분대에는 木浦管區를 중설하여 4개의 관구(광주, 영산포, 목포, 강진)도 편성하였다.[143]

한국주차군이 증가된 이후인 4월까지 순창의 계수역, 무안의 몽탄진, 장흥, 거문도에도 分隊兵力이 배치되었고, 제2대대 소속 제5중대가 광주에서 나주로 이동하여 서남부지역의 의병탄압을 담당하였다.[144] 나주지역으로 이동은 나주지역에서 의병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당시 나주 지역으로 진출한 일본인들을 보호하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또한 한국주차군은 부대와 부대, 기관과 기관 사이의 기민한 연락을 위해 警備電話의 가설을 서둘러, 1909년 2월 6일에 광주-장성, 3월 5일에 광주-순창, 4월 12일에 광주-능주, 13일에 장흥-해남간의 警備電話를 개통시켰다.[145] 뿐만 아니라 1909년 4월 탄압기관 수뇌부 회동에서 호남지방에 헌병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주차헌병대는 4월과 5월에 이 지방에만 45개소의 임시파견소를 설치하였다.

호남의병을 탄압하기 위한 한국주차군 등의 집중은 1909년 5월 다시

---

143) 『朝鮮憲兵隊歷史(1909.1~1910.8.)』3, 120~122, 127~130쪽.(신주백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144)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資料』13, 492, 847쪽 ; 앞의 책 14, 250쪽. 당시 광주에는 제8중대도 있었다.

145) 朝鮮憲兵隊歷史 앞의 책 , 365, 821쪽 ; 앞의 책 , 14, 332, 474쪽.(신주백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한번 바꾸었다. 그 변화의 핵심은 1907년 12월 임시로 결정된 남·북부 수비관구제를 南部守備管區의 制度化를 통해 확정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침은 안정된 지휘체계와 탄압작전의 연속성 확보, 병사들의 현지 적응력을 극대화시킴으로서 의병투쟁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

역설적이게도 한국주차군의 새로운 배치는 의병투쟁의 분산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각 지방의 의병부대 사이에 협력투쟁이 필요했던 이유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국주차군은 이처럼 1909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호남지방에 세밀하면서도 집중적으로 병력을 배치하고 호남의병을 탄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9년 여름으로 갈수록 호남의병의 투쟁열기는 강고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임시 한국파견대 사령부는 주도면밀하면서도 위압적인 특단의 작전을 장시간에 걸쳐 구상하였다. 새로운 작전의 필요성은 1909년 5월 大久保春野 한국주차군 사령관이 신임 임시 한국파견대 사령관에게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였다.

더구나 일본으로서는 다음 세 가지 점에서도 호남의병 투쟁에 대해 특단의 대응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 하나는 호남의병 투쟁은 러일전쟁이후 평화를 유지하며 국가 전력을 새롭게 정비하려는 日本의 戰後經營戰略을 방해하였다는 점이다. 요컨대 호남의병 등의 투쟁은 일본(군)의 대륙침략을 위한 숨고르기 정책의 허구성을 드러냈던 것이다. 또한 호남의병 투쟁은 대한제국을 완전 식민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최종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던 일본 내각의 방침을 동요하게 만들었다.[146]

마지막으로 호남의병 등의 투쟁은 군대의 위력을 통해 과시될 수 있는 支配者로서의 일본의 威信 내지는 帝國의 威嚴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었다. 더 나아가 의병을 탄압하는데 힘들어하는 군대의 모습은 앞으

146) 신주백 앞의 논문, 236~237쪽.

로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배하고 정책을 집행할 때 필요한 권위까지 약화시킬 우려가 있었다. 한국주차군의 존재 자체내지는 행동력이 갖는 정치성이 여기에도 있었던 것이다.[147]

1908년 이후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병들이 수백 명 이상의 규모의 대집단을 이루어 활동하거나 이동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군의 무자비한 학살과 타격으로 의병도 크게 줄어들었고, 대규모의 집단적 활동은 적에게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의병들에게는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자보급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한 조건에서 의병들은 기껏해야 수십 명 정도의 소규모 부대를 중심으로 한 게릴라식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1908년 4월 이후부터 1910년 말까지의 『조선폭도토벌지』의 일본군의 의병 토벌 개전에 관한 통계표를 분석하면, 양자 충돌시 의병 사망자 수는 전라남북도에서 일어난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10명을 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148]

1908년 가을 이후 의병봉기가 점증하고 있던 호남지역에서는 소규모 부대의 밀집 수색에 의한 '토벌' 방식만으로 의병투쟁을 진압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1909년 가을에 실시된 일본군의 『남한 대토벌』에서는 종전의 방식을 고쳐 攪拌的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토벌 병력을 세분하여 한정된 한 구획 안에서 수색을 실행하여 전후좌우로 왕복을 계속하고, 또 奇兵的 수단을 써서 의병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동을 엿볼 틈을 주지 않는 동시에, 해상에서도 수뢰정, 경비선 및 소수 부대를 배치하여 연안 도서 등으로 도피하는 것에 대비하였다. 이처럼 포위망을 농밀하게 하여 결국은 의병들이 진퇴양난에 빠지도록 하여 섬멸하는 것

147) 신주백 앞의 논문, 241쪽.
148) 홍순권 앞의 논문, 149쪽.

이 이른바 '교반적'방법이었다.[149]

이러한 일본군의 의병학살을 직접 목격한 황현은『梅泉野錄』에서 그 상황을 "사방을 그물 치듯 해놓고 순사를 파견하여 촌락을 수색하고 집집마다 뒤져서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으면 죽였다. 그래서 행인의 발길이 끊기고 이웃과 연락이 두절되었다. 의병들은 삼삼오오 도망하여 흩어졌으나 몸을 감출 데가 없어 강자는 돌출하여 싸워 죽었고 약자는 기어 도망하다가 칼을 맞았다."[150]라고 하였다.

호남의병은 '작전' 중에 의병장을 비롯한 420명이 전사하였고, 약 1,700명이 체포되거나 투항하였다. 하지만 일제의 유례없는 '작전'으로 말미암아 전남 산간내륙과 연안 도서지방에서 활동하던 호남의병의 피해는 앞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작전'을 종료한 후 최종 집계된 체포되거나 자수한 의병만 약 3,100명이나 되었기[151] 때문이다. 이 시기 나주지역에서도 많은 의병들이 몰락하여 가고 있음을 [부록] 나주출신 의병 명단을 통하여 파악하여 볼 수 있다.

또한 일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주민들도 적지 않은 인명피해와 가옥 소실, 강제동원 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는 의병전쟁을 치르는 동안 단 한 차례의 작전으로 입은 피해로는 전무후무한 기록이었다. 그들 스스로도 "대토벌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쾌거로 그 규모가 엄청나서 마치 대전쟁"이라고 평할 정도로 일제의 '작전'은 호남의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장 방대하고 무자비한 군사작전이었다.[152]

호남지방 특히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들의 목숨을 건 투쟁은 일

149)『조선폭도 토벌지』3, 1913, 672쪽.
150) 황현 저, 김준 역 『국역매천야록』, 교문사, 1994. 850~851쪽.
151) 『독립운동사』 1, 873쪽.
152) 홍영기 앞의 책, 404~405쪽.

본의 조선식민지화 정책 수행에 지대한 걸림돌이 되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한대토벌작전』을 시행하여 의병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중들까지 학살하는 잔학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이에 나주지역 의병들은 굴하지 않고 일본군과 목숨을 건 일전을 벌이고, 자위단 등 일제의 식민지화에 동조하는 친일조선인 단체를 무력화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이후 일제강점기하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정신적 원천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1910년대 나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핵심적인 인물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의병활동에서 많은 지도층들이 희생을 당한 영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의병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다음 세대들에 의해 이러한 의병정신은 20년대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을 비롯하여 광주학생항일 운동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며,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건 항쟁의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다.

Ⅴ. 맺음말

호남의병의 몰락은 국내에서의 조직적인 항일운동의 마지막 저항세력이 한국주차군에 패배했음을 의미한다. 호남의병이 한국주차군의 탄압작전으로 몰락하자 관료와 농민 등을 중심으로 한 많은 일본인이 전라도로 이주하면서 목포와 영산포 등지에 한정되어 있던 재호남 일본인 사회가 본격적으로 팽창하였다. 이는 군대가 점령한 영토에 관리를 파견하고 정착이민을 보냈던 일본식 영토 확장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운 호남의병은 조선인의 항일의지를 무장투쟁이란 수단으로 표현한 투쟁이었다. 의병투쟁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전후구상, 곧 '평화유지정책'의 허구성을 드러내게 했으며, '적당한' 시기에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일본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하였다.

한편, 일본군부는 호남의병 등의 저항투쟁을 제압함으로써 일본과 대한제국의 정계에서 군대 우위의 당위성을 증명해 보였다. 그 상징이 1910년 6월 경찰시무의 '위탁'이란 이름으로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통감부로 위임시켜 헌병경찰제도를 본격화시킨 조치였다. 동시에 한국주차군이 의병투쟁을 제압한 것은 당시 일본 육군을 장악하고 있던 山懸有朋, 寺內正毅 등의 武斷派로 하여금 조선의 식민지와 계획을 앞당길 수 있게 하였다.

의병진압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든 이후 무단파의 핵심인 長州蕃閥 출신자가 조선(주차)군에 대한 인사권 등을 독점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밑천이 되었다. 그들은 이를 발판으로 관동주와 만주, 더 나아가 일본 본토와 대만에서까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강력히 주장할 수

있었다.[153]

반면에 호남지방 조선인 사회는 1919년 3·1운동 당시까지도 새로운 지도력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그만큼 의병에 참여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한 지식인 계층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남지방의 지식인 및 민중들은 여기에 좌절하지 않고 충의 정신을 가지고 전통을 계승하면서 다시 항일 전선에 나가는데 그것은 1920년대 호남지방의 노동·농민운동이 활성화되는 것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정점이 광주학생 항일 운동으로 나타난다.[154]

한말 義兵운동은 개별 향촌사회의 수준에서 볼 때, 향촌내 지식인 사회를 결정적으로 분화시킨 분수령적 사건[155]이었기 때문에 의병운동의 참여 여부는 개인차원에서 결정될 일이 아니라 문중의 운명이 걸린 결단이자 지역의 집단적 운명이 걸린 일이었다. 이러한 중요한 일에서 친일이 아닌 일제에 저항하는 의병에 나주의 지배층들이 적극 나섰다는 사실은 지배층이 향후 나주지역에서 신망을 얻는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나주지역 지배층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성과 의병에 나서게 되지만 동시에 신분제가 해체되고 문명개화사상이 확산되면서 신분상승의 기회가 오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체제에 적극 수용되지 않고, 다시 말해 친일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적극적 사회운동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수성과 의병을 통해 획득한 지역사회에서의 도덕적 권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여 진다.[156]

---

153) 신주백 앞의 논문, 254쪽.
154) 朴眞哲 앞의 논문, 95~96쪽.
155) 홍성찬,「한말·일제하의 사회변동과 향리층 - 전남 谷城의 사례를 중심으로」,『한국 근대이행기 중인연구』,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9, 491쪽.
156) 朴眞哲 앞의 논문, 109쪽.

이렇듯 나주지역 지배계층은 지방제도 및 재정제도의 근대적 개혁에 저항함과 동시에 항일운동에 적극 나섬으로써 다른 지역과는 달리 도덕적 권위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덕적 권위는 지배층들이 나주지역의 사회 주도층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 놓일 때마다 목숨을 걸고 투쟁한 전통은 결국 인맥을 통해서 계승된 것인 만큼 나주지역 지배층은 한말 일제의 침략에서도 지배층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성군 참여와 의병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시켰으며, 일제시기 사회운동으로 전승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처했던 상황과 대처 방법은 달랐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주지역의 주도계층으로 존재하였으며 그들 사이에 견고하게 이어져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해방 전후 이념 대결의 시기에서도 큰 인명적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는 지역의 현대사는 이데올로기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157]

이처럼 나주지역 지배층들은 사회적 안전망을 통하여 일제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면서 사회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였으며 시대에 맞게 사회참여의 방식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한말 의병을 민족의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가 存亡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국민이 자발적으로 궐기하여 구국대열에 앞장섬으로써, 正義軍이나 義勇軍 등으로 불린 무장집단을 출현시킨 예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민족사에 기록된 의병처럼 大義

157) 朴眞哲 앞의 논문, 109쪽.

에 목숨을 바치는 투철한 자기 희생정신을 전제로 국난을 구하려고 한 예는 흔하지 않다.

이 義兵精神이야말로 우리 민족과 국가를 지켜온 民族의 魂이요, 외국의 침략에 대한 民族抗爭으로 국가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우리 民族精神의 結晶體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병정신의 모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忠義 精神으로 작게는 부모에 효도하고, 크게는 국가에 충성한다는 것으로 이는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통하여 닦아진 행동지침과 국가관에서 우러나온 것이다.[158]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나주지역 의병활동 역시 충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민족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의병으로 지역을 넘어서 국가의 중심에서 움직인 의병이었다.

158) 한상국, 앞의 논문, 112쪽.

[부록] 나주출신 의병 명단[159]

성명		자, 호,이명	연령	직업 및 신분	소속 및 직책	의병이후 행적	비고
1) 1896년 나주의병 참여자[160]							
1	김석균			이족			
2	김석현			이족		김창균의 자, 처형	
3	김재환			이족	군무		
4	김창균			이족	좌익장	처형	
5	나경성			주서			
6	나경식			유생			
7	나병두			유생	참모		
8	박근욱			이족	우익장		
9	박상수			이족			
10	박화실			이족	군무		
11	손상문			이족	군무		
12	손응설			전 현감	참모		
13	송종희			유생	서기		
14	승갑표			이족			
15	양인환			이족	군무		
16	염효진			이족	군량관		
17	오계수	중암, 난와		유생			
18	오득환			이족			
19	유기연	유기영		유생	수성장		
20	유기영			유생	통장		
21	유사규						

159) 상기 자료는 홍영기,『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부록과 나주시지편찬위원회, 『羅州市誌』, 2008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는 국가유공자로 선성된 인물들임.

22	이갑삼						
23	이병수	겸산		유생			
24	이승수			전 사과	중군장		
25	이원서			유생	군량관		
26	이학상			유생	의병장		
27	임긍규			유생			
28	임용선						
29	임홍규			유생	서기		
30	장길한			이족	군무		
31	장봉삼			이족	군무		
32	정석진	태완, 난파		이족, 주사, 해남 군수		체포 후 처형	
33	정판기						

2) 1907-1909년 의병 참여자[161)]

성명		자, 호,이명	연령	직업 및 신분	소속 및 직책	의병이후 행적	비고
1	강달주*		28		심남일, 후군장	1909년9월 체포	
2	권찬식	우택, 월산				대구 감옥 수형중 순절	
3	권택*	권영회 정찬회	26	농업	김율, 심남일, 조경환, 박민홍부대 참모장->독립	1909년 체포후 순국	
4	곽재구*		19		심남일,	체포 후	

					권택	15년 형	
5	김경포		29		김율		
6	김계화		35		김율		
7	김계환		35		김율	1909년 10월 자수	
8	김교풍*		50		김율	1908년 2월 사망	
9	김군칠				김율		
10	김기준		26		김율		
11	김명서		33	백목상	김동수	1909년6월 체포	
12	김병도		39			1907년 전사	
13	김병옥				전해산		
14	김봉옥		18		김율		
15	김봉채		26			1909년 10월 자수	
16	김삼화		30			1909년 10월 자수	
17	김상윤		59		김태원, 심남일	1908년 전사	
18	김선중				박사화-선봉장	1909년 7월 귀순	
19	김선호		32			1909년 10월 자수	
20	김성군		27		박민수		
21	김성률		46		이석용	1909년 10월 자수	
22	김성옥		27			1909년 10월 자수	
23	김순기		33		심남일	1909년 10월 자수	
24	김영구		37		김율		
25	김오봉		33		심남일	1909년 10월 자수	

26	김옥현		31		김태원-후군장, 김율	1909년 5월 체포	
27	김용기		23			1909년 10월 자수	
28	김용술		23			1909년 10월 자수	
29	김유성		42	단야	나성화		
30	김율*	청봉, 김박사	27	유생, 노사계열	회맹소->독립, 김준 동생	1908년 4월 사망	
31	김은식		42		박시화-중군장		
32	김인찬		28			1909년 10월 자수	
33	김제학		43		심남일	전사	
34	김제현		47				
35	김재수		41		김율		
36	김점수		32			1909년 10월 자수	
37	김정태		23	짚신 제조	김태원	1908년 6월 귀순	
38	김태원*	준, 죽봉	37		회맹소선봉장->독립	1908년 6월 사망	
39	김태옥		30			1909년 10월 자수	
40	김판진		27			1909년 10월 자수	
41	김현진		32		경북청도 활동, 하와이 귀국 후 의병가담	1908년 4월 체포	

42	김화백*		65		김율		
43	나명환					1908년 4월 귀순	
44	나봉일		21			1909년 10월 자수	
45	나승서	문백, 송남	46		심남일	1909년 자결	
46	나성화*	성언, 상집	35	농업	심남일-부장, 박민홍->독립	1909년 10월 체포된 후 순국	
47	나창준		27		김율		
48	나화욱					1908년 4월 귀순	
49	노병우	일당, 쌍동			심남일-부장, 박민홍->독립		
50	노수룡		19			1909년 10월 자수	
51	노연숙				전해산-4초십장	1910년 5월 체포	
52	박기순		25		심남일	1909년 10월 자수	
53	박명진				전해산		
54	박문기		31		심남일	1909년 10월 자수	
55	박민홍*	민수, 민주	40	이족	호남창의소	1909년 2월 사망	
56	박사화*	사홍	29	이족, 농업	심남일-부장->독립	1909년 10월 체포 순국	박민홍의 친족
57	박석순		38			1909년 10월 자수	

58	박성채		28	상업	조경환	1909년 10월 자수	
59	박순상	하산	43		심남일	생포 후 순국	
60	박여홍		30	이족	박민홍-재무장	1909년 2월 사망	박민홍의 동생
61	박용식			이족, 전군 서기	조경환-도통대장 ->독립	체포된 후 5년 형 받음	
62	박운기		27		김율		
63	박응천*		21		권택-후군장	체포	
64	박인찬*		33		나성화-순독, 보초감독	1910년 5월 순국	
65	박재홍		38			1909년 9월 체포	
66	박채홍		32		김율, 심남일		
67	박철환				심남일-도포		
68	박춘화		31			1909년 5월 체포	
69	변홍기		30		김율	1908년 3월 체포	
70	서상국*		27		기우만 부대	1906년 9월 체포 후 탈옥	
71	서석진		26			1909년 10월 자수	
72	서태화		30			1909년 10월 자수	
73	설재근		34		김율		
74	송석래*	경환,			김태원	1908년	

		서호				4월 사망	
75	송영호		20		김율		
76	송창삼		31		김율		
77	시귀성		22			1909년 10월 자수	
78	신가술		31			1909년 10월 자수	
79	신경광		23		김율		
80	신기술		31			1909년 10월 자수	
81	신삼봉		25			1909년 10월 자수	
82	신재화		29		김율		
83	신철순		39			1909년 10월 자수	
84	신학경	학교			심남일	체포 후 순국	
85	심형일		33			1909년 10월 자수	
86	안낙삼		37		나상집	체포 후 순국	
87	안장원		22		김율		
88	염원숙			유생	심남일-서기, 모사		
89	오덕홍*	병수	30			1909년 9월 체포 후 순국	
90	오일선		24		김율		
91	오진상	윤승			김태원, 김율	1908년 전사	
92	원재윤		16		김율		
93	유경선				전순필	1910년 2월 체포	
94	유덕일		43		김율		

95	유문익		33			1909년 10월 자수	
96	유정렬		20		김율		
97	윤거현		24		전남 서부서 활동	1909년 9월 체포	
98	윤덕신				김율, 조경환		
99	윤영채*	효원, 설송	22	유생	안규홍	1908년 5월 전사	
100	이경운		46			1909년 10월 자수	
101	이관호		25			1909년 10월 자수	
102	이대형		34			1909년 10월 자수	
103	이동규		30	농업	오성술	1909년 10월 자수	
104	이민상		48		김율	1908년 전사	
105	이민영		31		김태원, 전해산	체포 후 5년 유배	
106	이복규		28		김율		
107	이봉권		54			1909년 9월 체포	
108	이봉순		41		김율		
109	이사언		35			1909년 10월 자수	
110	이승규	송포	44			1909년 체포 후 10년 형	
111	이양원		29			1909년 10월 자수	
112	이응언		30		김율		
113	이종경	율암	39		김도숙,		

					노쌍동, 심남일-군장		
114	이종석		26	유생	김준, 심남일	40일 수감	
115	이재대*	복남	23		김태원	1909년 체포되어 탈옥	
116	이재윤		29		김율		
117	이태경		29		김율		
118	이택규				전남활동	1908년 4월 귀순	
119	이판수		23		전남 서부활동	1909년 9월 체포	
120	임권중		56			1909년 10월 자수	
121	임노술		18			1909년 10월 자수	
122	임도돌*		24	농업	나성화	1910년 5월 순국	
123	임맹옥		24		김율		
124	임성근		42		김율	체포된 후 10개월 형	
125	임영화*		27	농업	나성화-장포	순국	
126	임장택		27		김율, 전해산, 선봉장		
127	임종옥	성범	37		김준	적에게 생포 순절	
128	임화회		26			1909년 10월 자수	
129	장동문					1908년	

						4월 귀순	
130	장세진	국헌	45	유생	전해산, 김준	1908년 전사	
131	장용삼		25		나성화	체포된 후 5년 형	
132	장지만	남강	47	유생	김준	1908년 전사	
133	장지성	서은	47	유생	나상집, 김태원	1908년 전사	
134	전치홍	김치홍			박민홍-부장	1910년 1월 체포	
135	정계문		36		심남일, 김도숙	1909년 10월 체포	
136	정관오*	중산	24	유생	심남일-호군장	1909년 7월 체포, 3년 형	
137	정도홍		30	유생	심남일	1909년 9월 체포 후 탈출	
138	정두면		40		나상집-호군장	전사	
139	정선화		30			1909년 10월 자수	
140	정순일	치호	39		심남일	전사	
141	정영숙	정흥숙	30		전남 활동	1909년 9월 체포	
142	조군언		19			1909년 10월 자수	
143	조도현		48		김도숙	1909년 10월 체포	
144	조만석		19			1909년 10월 자수	
145	조양식*	기복	54		심남일	1908년 8월 전사	
146	조응률				전남활동	1908년	

						3월 체포	
147	조정인*	성인, 장훈	35	미곡상	김태원->독립	1908년 6월 체포,1909년 순국	
148	조창선		33			1909년 10월 자수	
149	주낙갑		25			1909년 10월 자수	
150	최광현				박민수	1909년 자결	
151	최동석		19			1909년 10월 자수	
152	최동현		29			1909년 10월 자수	
153	최병현					1909년 체포 후 순국	
154	최성진		32	농업	조정인	1908년 8월 귀순	
155	최우평*	종익, 후괴	29		심남일-후군장	1908년 10월 전사	
156	최중빈		27		김도숙	1909년 10월 체포	
157	최택현				박민수	1907년 8월 전사	
158	추낙범		28		김율		
159	추명환		26		김율		
160	추몽구		22		전남 서부활동	1909년 9월 체포	
161	한두환		29		권택	1909년 10월 체포	
162	한세환		28		박민홍	1909년 2월 체포	
163	홍승민*	금송,	26		전해산	1908년	

		승학				8월 전사	
164	홍승용	응언, 독청	39		심남일	체포 후 참형	
165	홍승희		35			1909년 5월 체포	
166	황견중		48		전남활동	1909년 9월 체포	
167	황도현		45		김준		
168	황명오		26		심남일	1909년 10월 자수	

160) 전기의병에서 처형자들은 1896년에 모두 처형되었으며, 직업이 표시되지 않은 사람들은 농민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61) 심남일 부대를 제외한 자수자들은 자신들이 활동한 부대를 밝히지 않았다. 또한 1909년 10월에 집중적으로 자수자가 있는 것을 볼 때 이 시점이 '남한대토벌 작전'에 의해 나주의병이 완전히 와해 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직업이나 신분이 표시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민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 參考文獻

1. 사료

『各司謄錄』54,「湖南肅啓草」

『구한국 관보』

『高宗實錄』 권32

國史編纂委員會 編,『韓國獨立運動史資料』4~19

나주군지편찬위원회,『나주군지』, 1980

나주시지편찬위원회, 『羅州市誌』, 2008

『獨立運動史資料集』別集 1卷, 국사편찬위원회, 1969

『독립운동사자료집2 : 의병항쟁사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1982

「大韓每日申報」

『密陽朴氏淸齊公派家乘譜』, 1988

목포대학교박물관·나주시청,『羅州近代百年史-신문자료집(1887~1960)』, 향지사, 1997

변상철·변만기,『鳳棲·봉남일기』, 국사편찬위원회, 1979

朴殷植,『韓國通史』 (중) 번역본, 박영사, 1974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전라남도지』7, 1993

『朝鮮憲兵隊歷史(1906.10~1908.12.)』2

『朝鮮憲兵隊歷史(1909.1~1910.8.)』3

『조선폭도토벌지』, 한국주차군 사령부, 1913

申箕善,「奉使日記」, 『申箕善全集』, 아세아 문화사, 1981

愛國同志援護會編 : 韓國獨立運動史(서울 : 同 援護會 1956)

李炳壽, 『(국역)錦城正義錄』,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1991

『한국독립운동사』1~13, 국사편찬위원회, 1984

황현 저, 김준 역 『국역매천야록』, 교문사, 1994
『擇里志』「八道總論」「全羅道」 乙酉文庫, 1962

2. 단행본

金容燮,『朝鮮後期 農業史硏究(下)』, 일조각, 1970
금장태, 고광식,『儒學近百年』, 박영사, 1982
김상기,『한말의병연구』,일조각, 1997
나주시 문화원편, 『국역 금성읍지』, 나주시 문화원, 1989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나남출판사, 2003.
홍순권,『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4.
홍영기,『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이일룡 역,『비록 한말전남의병전투사』, 전남일보인서관, 1977
F.A. 맥켄지,『韓國의 獨立運動』, 일조각, 1969

3. 논문

강길원,「海山 全垂鏞의 抗日鬪爭」,『歷史學報 第101輯』, 1984
권구훈,「韓末 義兵의 參加階層과 그 動向 - 後期義兵의 性格變化와 關聯하여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제5집』, 1987
金容燮,「韓末 日帝下의 地主制 - 事例 4:古阜 金氏家의 地主經營과 資本轉換-」『韓國史硏究』19, 1987
金永鎬,「침략과 저항의 두 가지 양태」, 『문학과 지성』, 1970
고석규,「朝鮮 後期 場市 變動의 樣相- 전라남도의 장시를 중심으로-」,『한국문화 21』, 1998
박재우,「한말 20年間의 義兵抗爭이 近代社會에 미친 影響」,『인문학연구 5집』, 2000

박진철,「한말·일제하 나주지역 향리가문의 동향」,『대동문화 연구』, 2008

_____,「한말 나주읍 향리사회의 특성과 변화」,『대동문화51집』, 2005

박찬승,「일제하 나주지역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한국근현대 지역운동사』2, 여강출판사, 1993

裵英淳,「韓末 驛屯土調査에 있어서 所有權 紛爭 - 光武査檢期의 紛爭事例에 대한 分析을 중심으로-」,『한국사연구』25, 1979

배항섭,「1896년 나주 향리층의 의병주도와 그 배경」,『대동문화연구』51, 2005

_____,「중·후기 의병전쟁 시기 나주 지역 향리층의 동향」,『한국사학보』23, 2006

신주백,「湖南義兵에 對한 日本 軍·憲兵·警察의 彈壓作戰」,『역사교육 87』, 2003

유정현,「1894-1904년 지방제정제도의 개혁과 이서층 동향」,『진단학보』73, 1992

유한철,「일제'한국주차군'의 한국 침략과정과 조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6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윤정애,「한말 지방제도 개혁의 연구」,『역사학보 제105집』, 1985

李求鎔,「韓末義兵抗爭에 대한 考察 - 義兵鎭壓이 段階的 收拾對策-」, 『國史館論叢』23, 1991.

이상식,「한말의병항쟁 -전남지방을 중심으로-」,『역사연구4』, 1990

趙璣濬,「日人農業移民과 東洋拓植會社」,『韓國近代史論』, 지식산업사, 1977

鄭昌烈,「露日戰爭에 대한 韓國人의 對應」,『露日戰爭前後 日本의 韓

國侵略』, 일조각, 1986,
한영규,「한말일제하 羅州儒林의 현실인식과 글쓰기-謙山 李炳壽(1855~1941)의 사례」,『반교어문연구 22집』, 2003
홍순권,「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의 參加層과 사회적 기반」,『역사연구 제1집』, 1992
_____,「한말 일본군의 의병 학살」, 『제노사이드연구 제3호』, 2007
홍성찬,「한말·일제하의 사회변동과 향리층 - 전남 谷城의 사례를 중심으로」,『한국 근대이행기 중인연구』,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9
홍영기,「구한말 심남일의병의 조직과 그 활동」,『동아연구 제17집』, 1989
_____,「舊韓末 湖南義兵의 倡義性格」,『湖南文化硏究 제22집』, 1992
_____,「1907-8년 일제의 자위단 조직과 한국인의 대응」,『한국근현대사 연구3』, 1995
_____,「정미의병기 호남지방의 의병 활동」,『지역문화 연구 6』, 2007
_____,「한말 나주의병의 주도 인물과 활동」,『한국학 논총 34』, 2010
_____,「後石 吳駿善의 意兵傳의 저술과 후학 양성」,『역사연구 제45집』,2011
河元鎬「開港後 放穀令實施의 原因에 관한 硏究(1876~1904)」,『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84

4. 기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테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별첨 9) 저작물 이용 허락서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역사교육	학 번	20128050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우정석 한문: 禹 正 錫 영문: Woo Jung Sug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화산로 73번지 고운하이플러스103동 1302호				
연락처	011-646-0575 E-MAIL: ubbing@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한말 나주의병 연구 영문 : A Study of Naju Volunteer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13년 10월 25일

저작자: 우정석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